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지식 나눔

모교, 국내 대학 최초로 강의 무료 공개

총동창회 장학연구지원사업 일환... '현대철학사조' 등 13개 강좌

모교가 지난 9월 23일부터 13개 전공·교양 강의를 국내 대학 최초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에 무료 공개하고 있다.

모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 따르면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서울대 온라인 공개강좌 사이트(<http://snuon.snu.ac.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NUON)을 통해 올해 1학기에 개설된 13개 전공·교양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해당 13개 강좌는 ①현대철학사조(인문대 박贊國교수), ②한반도와 국제정치(사회대 趙東濬교수), ③물리의 기본1(자연대 崔善浩교수), ④디자인과 경영전략(경영대 趙東成교수), ⑤로봇공학 입문(공대 朴鍾寓교수), ⑥운영체제의 기초(공대 洪性秀교수), ⑦신재생에너지(공대 朴亨東교수), ⑧녹색에너지(공대 許殷寧교수), ⑨동물해부생리학 입문(농생대 林正默교수), ⑩형사소송법(법대 李祥源교수), ⑪Politics, Individuals, and Society(사대 金熙民교수), ⑫Music of the World(음대 Hilary교수), ⑬환경과 건강(보건대학원 李基永교수)이다. <3면 별표 참조>

 朴贊國교수 현대철학사조	 趙東濬교수 한반도와 국제정치	 崔善浩교수 물리의 기본1	 趙東成교수 디자인과 경영전략	 朴鍾寓교수 로봇공학 입문
 洪性秀교수 운영체제의 기초	 朴亨東교수 신재생에너지	 許殷寧교수 녹색에너지	 林正默교수 동물해부생리학 입문	 李祥源교수 형사소송법
 金熙民교수 Politics, Individuals, Society	 Hilary교수 세계의 음악	 李基永교수 환경과 건강	■ 열린강좌 접속 ▲PC 홈페이지(http://snuon.snu.ac.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NUON) 다운로드 (교수 사진은 온라인 강의순)	

상 촬영 예산으로 2012년 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13년에도 5억원을 지원 중에 있다. 연간 평균 5억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앞서 총동창회 林光洙회장은 2012년 6월 27일 초일류 학과 및 학부 만들기 과 교수 강의 동영상 개설을 추진할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12일 모교 吳然天총장과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교 교무처 林哲一교육부처장은 "2학기에 개설된 9개 강좌를 대상으로 2차년도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2014년 3월 말에는 총 22개로 열린강좌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교수 강의 동영상 공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초 모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SNUX : www.edx.org/school/snux) 중 4개 강좌가 edX에 올라갈 예정이어서 모교 교수 강의 동영상에 비로소 세계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3면에 계속>

Finchum—Sung교수), ⑬환경과 건강(보건대학원 李基永교수)이

다. <3면 별표 참조> 모교의 교수 강의 동영상 무료

공개는 총동창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것이다. 총동창회는 동영

10월 20일 일요일에 만나요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4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오는 10월 20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을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한 후 교내 벚꽃길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10월 20일(일요일) 오전 9시
-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대회장소 : 모교 노천강당 앞 벚꽃길
-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 △참가회비 : 없음
-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 △경 품 : 풍성한 선물 추첨(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장 吳然天

관악출추

모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35위를 기록했다. QS가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첫 발표한 지난 2004년 1백18위에서 시작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학계의 평판,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위상이 비

교적 정확하게 평가 받은 셈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24위), 홍콩대(26위), 도쿄대(32위), 홍콩과기대(34위)에 이어 교토대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모교의 위상은 올해 개교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한 潘基文 UN 사무총장의 활약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세계 곳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서울대의 위상을 빛내는 주인공이다.

따지고 보면 각계에서 활동중인 33만명의 동문들이 모

두 자신의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개학 118주년(통합개교 67주년)을 맞도록 전통과 위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는 바탕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아직 노벨상 분야에서 동문 수상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되었건만 서울대 출신들의 이름은 끝내 비껴가고 말았다.

세계적인 대학일수록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번 QS 대학평가에서 전체 1~3위를 차지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비롯해 해마다 10위권에 넘나드는 대학들이 단골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도쿄대를 비롯해 교토대, 나고야대, 고베대, 홋카이도대, 도호쿠대 등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그렇다고 노벨상에 조바심을 떨거나 실의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존심의 상처를 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임을 자부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몇 년 안에 노벨상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許英燮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세계 35위, 그러나 노벨상은...

느리나무광장

엄지손가락만한 새가 날아와 창턱에 앉는다. 양쪽 귀가 얼굴 반을 덮은 개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야행성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신문을 펼쳐 든 내가 비스듬히 누워있다. 방금 먹은 밥알을 삭히느라 허리가 구부정하다.

묻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금고 속에 넣어둔 비밀 종이를 태워버리고 난 뒤 33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은 남자가 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뭘? 하고 되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고 다시 묻자 대답했다. 33년 동안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

내 삶에는 아직 대답을 못 찾은 많은 의문이 도사리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대답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가 궁금해진다.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인식돼진 진짜 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

“나에 대해 증언해주세요” 하고 주변 사람에게 묻고 싶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이라는 것이 정작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이뤄져 있을 것만 같다. 내 어린 시절도 내가 나에게 대해 기억하는 것은 일부분이거나 왜곡돼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내 모습은 부모와 형제가 더 잘 알 것이다. 내 내면세계까지도 그럴 것이다. 형에게 묻고 싶다. “형, 내가 초등학교일 때 어떤 아이였어요?”

청소년 때도 비슷하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을 때 친구들이 증언하는 내 모습은 무얼까 궁금하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의 10분의 1이나 될까.

군대에서 나는 고문관이었을까. 그들은 병장 계급장을 단 내 뒤에 숨어서 나를 고문관이라고 손가락질했을까. 풀

“나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金 旻 日
조선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뿔이 감일병으로 기억하는 전우도 있었을까 싶다. 제대하는 선임병에게 추억 앨범이나 만들어주는 신입 병사로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

직장에서 감기자는 누구일까. 나는 감기자를 모른다. 잘 웃고 잘 마시는, 젠틀하지만 물렁빠인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짐작은 해본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실은 무대뿐 데스크 이미지로 나를 기억하는 후배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내 이름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행세해 온 감기자를 모르고 김부장을 모른다.

거울을 보며 묻는다. 너는 누구냐. 나에게 얘기해줄 증언자를 찾아나선다. 우선 어린 시절 나를 기억해줄 노인을 찾아가겠다. 아흔일곱 되신 큰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리고 내일모레 여든 되시는 작은아버지 부부를 찾아뵙겠다. 첫째 작은어머니, 고모, 이모, 이모부, 외사촌에게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청년이었는지, 30대였는지 물을 것이다.

혹시 대학 은사님을 찾아뵙면 의외의 얘기를 들을지 모른다.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건 지하서를 가입이 들통나 정보기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엔 성적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생각한다. 창턱에 앉았던 새가 날아간다. 무릎 밑 개가 머리를 앞발 위에 얹고 눈을 감는다. 햄스터 쳇바퀴 소리가 멎었다.

관악시단

정년퇴직

權 奇 成(행대원77-79)세명대 석좌교수

오늘도,

해는 분명 떠오르겠지
65년 동안 어김없이
솟아났으니깐 말이다.

그러나
내일은 제 시간에...
Retire 했으니 아마 별 탈 없겠지,
그렇지만 성능은...
본체가 많이 마모되었으니
전과 같지는 않겠지

앞으로 한 20년간 이제까지와 같이,
중도 하차없이 잘 굴러 가도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잘 손질하고, 정비·정돈 하여야겠다.

거기엔,
무엇보다
균전한 마음이 따라야 한다.

오늘도,

이 타이어가 닳을 때까지
더 열심히 달리리라.

동문칼럼

지난 8월 말 서울대 법대는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뜻하는 졸업식은 희망과 축복의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학부생들의 졸업으로 재학생이 줄어들고 3~4년 내에 법대 학부 자체가 사라질 운

명에 놓여 있는 법대의 졸업식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5년 전 로스쿨을 설립하면서부터 법대 학부의 운명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이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법대 학부가 고사돼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하는 현실이 애처롭게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이다.

민주당은 예비시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새로운

특권이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비싸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은 예비시험의 도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을 지급하는 정 공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클린턴 대통령 모두 하버드 로스쿨에서 희망장학금을 받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닌가?

서울대 법대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도 수



丁 相 朝
(법학78-82)
모교 법학부 교수
모교 법대 학장

행하지만 동시에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수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로스쿨이 돼야 한다. 따라서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법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무한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인문사회계 연구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연구비 지원이 있었지만, 법학에 대해서는 거의 국고지원이 없었다. 법학에 대한 연구 없이 어떻게 합리적인 법제도 설계가 가능하겠으며 어떻게 선진적인 법학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의 법학

시험제도로써 제안된 것이다. 예비시험을 두고 있는 일본은 법대 학부를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법대 학부생들이 로스쿨로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법대 학부생들이 로스쿨로 진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로스쿨제도는 거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창구가 막혔다고 하는 비난도 일반 대중에 어필하는 매력적인 공격메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이 3년제가 아니라 2년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로스쿨의 등

서울대 법대를 포퓰리즘의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로스쿨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학은 기로에 놓여 있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서울대 법대를 25개 로스쿨의 하나로 하향 평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수준의 법학을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하버드 로스쿨로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은 선택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가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모색하고 실천할 것인가? 서울대 동문의 깨어있는 의식과 실천적인 모교사랑이 절실하게 기대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旻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邊廷洙, 朴秀璋

(1면에 이어)

모교의 교수 강의 동영상 무료 공개와 관련, ‘조선일보’는 9월 22일 A10면 ‘서울대, 13개 전공·교양강의 일반인에 온라인 무료 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강의를 단편적으로 일반에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한 학기 강의를 통째로 녹화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 서울대가 처음”이라며 “서울대 열린강좌 서비스는 강의 영상 제공뿐 아니라 수강생들이 연습문제 풀이, 토론, 과제 제출 등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홍보용 강의 공개가 아닌 실제 강의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9월 23일자 사설 ‘대학 강의의 公開 늦었지만 속도 내야’에선 “서울대는 앞으로 공개 강의를 50개로 늘리고 이를 들은 서울대생과 일반인에게 학점이나 수료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대학 대부분은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강의 공개는 대학이 쌓은 전문 지식을 일반에 환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대학 사회에선 강의의 질(質)이 비교 평가되는 강의 공개를 불편해하는 교수가 적지 않지만, 강의 공개와 온라인 교육이 파할 수 없는 추세라면 대학과 교수 모두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참여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짜 사설 ‘서울대의 학부 강의, 캠퍼스 밖

〈교수 강의 동영상 13개 강좌〉

연번	교 수	강 좌 명	부 제
1	朴 贊 國	현대철학사조	현대철학의 거장들
2	趙 東 濬	한반도와 국제정치	폭력, 돈, 생각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3	崔 善 浩	물리의 기본1	누구나 쉽게 배우는 대학물리학 - 역학과 파동을 중심으로
4	趙 東 成	디자인과 경영전략	예술과 경영의 만남
5	朴 鍾 寅	Introduction to Robotics	Fundamentals of Robot mechanics and control
6	洪 性 秀	운영체제의 기초	쉽게 배우는 운영체제 원리
7	朴 亨 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디자이너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8	許 殷 寧	녹색에너지	함께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미래형 에너지 대안
9	林 正 默	동물해부생리학 입문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해부학
10	李 祥 源	형사소송법	손에 잡히는 형사소송법
11	金 熙 民	Politics, Individuals, and Society	Beginning Politics for Dummies
12	Hilary Finchum— Sung	Music of the World	From an ethnomusicological Perspective on World Music
13	李 基 永	환경과 건강	알아두면 유익한 환경보건학

으로 흘러넘치길’을 통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 누릴 수 있는 고등교육 혜택이 상아탑을 벗어나 사회 곳곳으로 퍼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대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서울대의 이번 강의 공개는 우수 학생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온 우리 대학 사회에 잘 가르치기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 강의

가 공개되면 무엇보다 학부 교육의 질이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가 뒤따랐다”고 기대했다. 사설은 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대학 밖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강의 공개로는 부족하며 강의를 듣는 학생 또는 일반인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타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서울대가 솔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대표대학의 용기 있는 결단

해설

모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개 전공·교양 강의를 일반에 무료 공개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내 일부 대학에서 강의를 단편적으로 일반에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한 학기 강의를 통째로 녹화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모교는 열린강좌 서비스를 통해 강의 영상 제공뿐 아니라 수강생들이 연습문제 풀이, 토론, 과제 제출 등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평생교육은 물론 정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50개까지 강의를 확대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모교의 교수 강의 동영상 공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에선 2001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강의를 처음 무료 공개한 이후 하버드·예일·스탠퍼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강의를 수백 개씩 무료로 온라인에 올렸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경우 강의 공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동영상 공개가 부진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모교의 동영상 강의 무료 공개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동영상 강의 공개는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林光洙총동창회장은 2012년 6월 27일 초일류학과 및 학부 만들기과 교수강의 동영상 개설을 추진할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2일 모교 吳然天총장과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기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교수 강의 동영상 관련 예산으로만 매년 5억원을 모교에 지원하고 있다.

지식을 일부 세력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강의 공개와 온라인 교육 역시 파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따라서 대학과 교수 모두 강의 동영상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학이 쌓은 고품위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다. 이는 사교육과 등록금에 허덕이는 가계 부담을 덜어줄 묘책도 된다. 지식 전파와 쌍방향 교류의 초석이 될 모교의 교수 강의 동영상 공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尹在錫 CBS 객원해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교수 강의 동영상 시연·교내외 홍보 전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6일 모교 관악 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뛰아르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자인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前총장과 任廷基(의학68-75)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모교 평의원회 朴鍾根(전기공학69-73)의장, 李在影(영문83-87)학생처장, 朴枝香(서양사학71-75)중앙도서관장, 林哲一(교육82-86)교육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辛鉉雄(지리64-68)·孔大植(기계공학56-60)부회장, 본보 尹在錫(화학교육71-75)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를 시연했다. 위원들은 실제 강좌의 수강 과정을 체험하고 모교 고유의

‘서울대 폰트’를 개발해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언론 매체와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각도로 전개되는 홍보 활동을 교내외에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월 16일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 성과와 과제’(가제)라는 제목으로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과 교수혁신프로그램의 완료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013년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의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3개의 무인 촬영 시스템 강의실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9개 강좌가 촬영 중임을 밝혔다. 무인 촬영 강의실은 향후 증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모교는 2012년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로 개발된 13개 강좌를 ‘서울대 열린강좌’로 일반에 공개 중이다. (秀)

■ 열린강좌 접속 방법

▲PC 접속 : SNUON 홈페이지(<http://snuon.snu.ac.kr>) 접속 → 로그인 → 강좌 목록에서 원하는 강좌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마이페이지-나의 수강강좌에서 확인 가능(현재 교수 및 학생만 로그인 가능)

▲모바일 접속 : 아이폰·아이패드는 앱스토어, 삼성·LG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SNUON’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로그인 없이 강좌목록에서 강좌 선택 및 시청



Share SNU Courses

서울대 열린강좌 열강

서울대만의 특별한 전공 강좌를 9월 2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PC와 스마트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snuon.snu.ac.kr>
SNUON App



서울대학교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학역적 인재육성**과 **지식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강좌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였습니다.

후원 서울大學校 總同窓會

개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문의 이러닝콘텐츠개발부 ☎ 880-4028 snuon@snu.ac.kr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은 Bio Process 및 Lab 분야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은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연구개발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실험실 및 생산공정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Tel. 031. 622. 5722 Fax. 031. 622. 5799 Service Call Center 1600-0288

www.sartorius.co.kr



선·후배 하나되어 필드 위에서 굿샷!

제9회 동문 골프대회 ... 42개조 1백66명 참가
단체전 법대 우승·메달리스트에 河光龍·李順全동문



林光洙회장은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진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제9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66명이 42개조로 나뉘어 샷건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녀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메달리스트는 대표팀에서 선발했으며, 동 타일 경우 연장자 우선 순위로 결정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를 통해 “모교는 QS가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경대를 제치고 4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작년 37위에서 올해 35위에 올라 국제적 위상을 해마다 높여 가고 있다”고 전한 뒤 “총동창회 역시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모교에 70억원을 지원하는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며 “동문 여러분의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은 축하에서 “모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적인 대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최근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외풍에 휩쓸리고 있다”며 “이러한 때 이제에는 참신한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QS 평가에서 35위를 넘어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李吉女(가천대 총장)부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이 세상에는 ‘비밀, 공짜, 정답’이 없고 ‘별, 꽃, 사랑’이 있다”며 “제가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우리 동문들의 마음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라고 선창하면 ‘있다’고 외쳐주시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진 건배사에서 모교 李基俊前총장은 “입학생보다는 졸업생이 훌륭해야 좋은 대학으로, 이는 앞으로 모교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며 “동문들의 장래와 모교의 발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고 전한 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고 선창했다.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대표팀 단체전은 함께 2백23타를

기록한 법과대학동창회가 의과대학동창회를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치과대학동창회 I팀이 3위를 차지했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金壯珉(AMP 69기)동문에게 돌아갔다. 남녀 친선팀에서는 李漢江(임학69-73)동문과 최인숙(ABKI 3기)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남녀 메달리스트에는 70타를 기록한 河光龍(법학76-80)동문과 76타를 친 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남녀 롱기스트상은 각각 2백65m와 1백85m를 기록한 백현일(치의학99-05)동문과 韓松利(치의학89-95)동문, 남녀 니어리스트상은 權純弼(AMP 69기)동문과 許永聖(치의학84-90)동문이 차지했다.

남녀 감투상은 李炯均(정치59-64)동문과 李吉女(의학51-57)동문, 남녀 행운상은 黃基先(의학84-91)동문과 이은경(ABKI 3기)동문에게 돌아갔다.

한편 참가자들은 양식기 세트를 비롯한 머그잔 세트, 골프 모자 및 티셔츠, 고궁 식사권, 레드와인 폴리페놀 농축액을 기념품으로 제공받았으며 만찬 후 추첨을 통해 스쿠터, 디지털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 퍼터, 건강 검진권, 영양제(오메가3), 호텔 식사권, 카보나구이판 등 푸짐한 경품을 받



대표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법과대동창회팀



대표팀 개인우승 金壯珉(左) 동문



친선팀 남자우승 李漢江(左) 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최인숙(中) 동문

았다. 삼익악기 金鐘燮(사회사업66-70 본회 부회장)회장이 제공한 디지털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는 각각 최인숙(ABKI 3기)·任國熙(치의학94-00)동문, 대림산업 李俊鎔(경제56-60) 명예회장이 제공한 스쿠터는 조재만(치의학92-98)동문이 행운의 영광을 안았다.

(香)
(협찬자 명단 6면 참조)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河光龍(법학76-80)·蔡晶錫(법학75-79)동문 △2위: 의과대학동창회 鄭重熙(의학78-84)·李海元(의학83-89)·南基世(의학84-90)동문 △3위: 치과대학동창회 I팀 羅炳宣(치의학69-76)·姜泰聲(치의학71-77)·林鍾昊(치의학82-88)동문

개인전 △우승: 金壯珉(AMP 69기)동문 △2위: 李東炫(AMPFRI 15기)동문 △3위: 禹泳華동문 △4위: 南基世동문 △5위: 林鍾安(치의학90-96)동문

◆친선팀

△우승: 李漢江(임학69-73)·최인숙(ABKI 3기)동문 △2위: 俞在文(임상가공77-81)·유미녀(ABKI 3기)동문 △3위: 孔大植(기계공학56-60)·손인숙(ABKI 3기)동문 △4위: 鄭吉燮(SPARC 22기)·金貞子(HPM 20기)동문 △5위: 徐元俊(농화학67-71)·俞貞淑(체육교육64-68)동문 ▲메달리스트: 河光龍·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 ▲롱기스트: 백현일(치의학99-05)·韓松利(치의학89-95)동문 ▲니어리스트: 權純弼(AMP 69기)·許永聖(치의학84-90)동문 ▲감투상: 李炯均(정치59-64)·李吉女(의학51-57)동문 ▲행운상: 黃基先(의학84-91)·이은경(ABKI 3기)동문



나이 70은 인생 내리막의 종점인가. 아니다. 아직 호기심이 남아 있고 꿈과 희망을 안고 있다면 나이쯤이야 무슨 문제인가. 일본의 건강잡지에 실린 노년의 건강을 위한 ‘1無 2少 3多 4必 5友’ 전략을 소개한다. 없애야 할 것 한 가지, 줄여야 할 것 두 가지, 늘려야 할 것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 네 가지, 그리고 몸에 익혀 버텨 삼아야 할 것 다섯 가지가 전략의 전부다.

△1無-담배를 끊어라 : 없애야 할 것 한 가지가 바로 담배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여러 의학 적 근거로 볼 때는 담배를 끊는 것이 옳다. 담배의 독소는 그 무서운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라지 않은가.

1무 2소 3다 4필 5우

△2少-식사량과 음주량을 줄여라 : 식탐은 비만을 낳고 모든 성 인병의 원인이 된다.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되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마시는 술의 양도 많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폭주는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명적인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多-운동, 접촉, 휴식을 늘려라 : 어떤 운동이든 한 가지는 매일 하는 게 있어야 한다. 신체적으로 활동이 자유로워야 삶이 즐겁다. 접촉이란 다른 사람, 다른 일과 직면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세계’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휴식은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피로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할 일이 쌓였더라도 건강 유지를 위한 휴식은 많을수록 좋다.

△4必-걷고, 배우고, 즐기고, 웃어라 : 매일 한 시간 정도만 걸으면 결코 아파 늙는 일은 없다. 특히 공기가 맑은 새벽 시간, 나무가 많은 숲이나 공원을 걸으면 좋다. 배움은 정해진 나이가 없다. 노인 대학이나 문화센터, 또는 사설학원이라도 목표를 정해 놓고 무엇이든 배우면 늙을 틈이 없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는 활력소다. 억지웃음이라도 웃으면 정말 웃게 되고, 정말 웃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솟아난다. 긍정적인 마음은 행운을 불러온다.

△5友-자연, 친구, 책, 술, 컴퓨터를 가까이 : 자연 속에 건강과 젊음이 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소통을 나누는 책은 정신과 마음을 윤택하게 해 준다. 술은 즐거움을, 컴퓨터는 이 시대를 가깝게 하자는 의미다.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크컬)에서 -



‘동창의 날’ 재학생 장학금 수여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9월 2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본관 103호 강의실에서 ‘동창의 날’ 행사 및 2013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당초 연건캠퍼스 내 잔디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행사는 우 천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梁光姬회장과 모교 간호대 朴賢愛학장을 비롯해 동창회 임원 및 모교 교수, 장학기금을 출연한 金貞姬(간호52-55)·金南連(간호53-56)·李愛珠(간호65-69)동문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북 안동시서 추계문화탐방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9월 28~2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북 안동시 일대를 순회하는 2013년 추계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卞柱仙회장을 비롯해 金榮愛(생물교육64-68)상임부회장, 鄭淸喜(체육교육62-66)·

任公姬(가정64-68)·申正淑(화학교육67-71)·李東植(영어교육72-76 본보 논설위원)부회장 등 40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동문들은 첫날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퇴계종택 등을 탐방한 뒤 온계종택에서 만찬을 즐기며 화가에애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이튿날에는 도산온천 체험, 농암종택 하회마을을 관람 등의 일

梁光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동문들을 모시고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기획됐다”며 “동창회는 동문들이 협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새롭게 회원 명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협찬해 주신 여러 동문과 연락처 수집을 위해 동문분서주한 각 동교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장학기금 출연 동문 소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13명에 9백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금을 출연한 선배 동문이 직접 장학생에게 증서를 전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정을 진행하며 초가를 풍광과 정취를 한껏 즐겼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卞柱仙회장이 50만원의 후원금을 출연했다.

총회 준비사항 점검

안양지부동창회

안양지부동창회(회장 金昌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풍성한식당에서 金昌範(의학70-78)회장과 張永蘭(국악75-80)·鄭祥喆(치의학82-88)부회장, 金雲基(응용미술78-82)사무국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운영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22일 개최하는 정기총회의 기념품 및 행사 프로그램, 장소 등의 준비 사항과 회원 명부 증보판 제작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載〉

제9회 동문 골프대회에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信浩(의학46-52)본회 고문 : 에너젠 및 포카리 각 2백개
- 林光洙(기계공학48-52)본회 회장 : 양식기 세트 1백80개
- 李吉女(의학51-57)본회 부회장 : 머그잔 세트 2백개
- 朴熙伯(의학51-57)본회 부회장 : 청소기 2대
- 李金器(약학55-59)본회 부회장 : 그릭요거트 및 케어3 각 3백개
- 李竣鎔(경제56-60)본회 부회장 : 스쿠터 1대
- 孫京植(법학57-61)본회 부회장 : 영양제(오메가3) 12개
- 孫吉丞(상학59-63)본회 부회장 : 위커힐호텔 식사권 2인용 5매
- 趙炳祐(섬유공학59-64)본회 부회장 : 모자 1백80개
- 成耆鶴(무역66-70)영원무역 회장 : 골프 티셔츠 2백10개
- 金鐘燮(사회사업66-70)본회 부회장 : 디지털 피아노 1대·기타 3대
- 鄭八道(AIP 1기)본회 부회장 : 퍼터 6대
- 姜普英(HPM 1기)안동병원 이사장 : 건강 검진권 2인용 2매
- 申一汕(AMPFRI 14기)나노카보나 대표 : 카보나구이판 10개
- 辛東烈(GLP 3기)성문전자 회장 : 쌀(10kg) 20포
- 朴秉南(AMPFRI 4기)고궁 대표 : 고궁 2인 식사권 3백매
- 李東玄(AMPFRI 15기)강남와인스쿨 이사장 : 레드와인 폴리페놀 농축액 1백90개 및 만찬용 와인

제16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4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4년 3월 21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총회 추진경과 등 회무 논의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李文漢)는 지난 9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활관 3층 ‘소담마루’에서李文漢회장을 비롯해 趙商來·姜華淳부회장, 모교 수의대 柳判童학

장 등 1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칙 및 ‘자랑



좌로부터 여섯 번째李文漢회장, 일곱 번째 柳判童학장

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 규정 개정안 등 회무 전반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에서李文漢회장 등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논의 끝에 金顯英(수의학58-62)·朴龍浩(수의학74-78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趙榮植(수의학80-84 에스디바이오센서 회장)등문 등 3명을 만장일치로 선정했으며 동창회 원로인李相滿(수의학48-56)동문에 게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기로 결의했다.



좌로부터 세 번째 柳鍾珽관악구청장, 네 번째 崔蓮梅회장.

독거 노인·미혼모 가정 지원

BCP동창회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崔蓮梅)는 지난 9월 3일 서울 관악구청 구청장실에서崔蓮梅회장, 朴在植(BCP 10기)사무총장, 康景宣(수의학82-89)주임교수, 柳鍾珽(철학78-85)관악구청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관악구에 거주 중인 독거 노인 25명에

대한 생필품 지원 전달식을 가지고 7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 지원사업(1년간 3천만원)을 약정했다.

같은 날 서울 YMCA 봉천동 사회복지관에서崔蓮梅회장, 朴在植사무총장, 康景宣주임교수, 김선덕 복지관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혼모 가정 및 한부모 가족 25가구에 대한 생필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운길산서 등산모임

ACPMP동창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鄭秀顯)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에서 환경부鄭然萬(ACPMP 7기)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李忠在(ACPMP 8기)청장, 국토교통부朴庠禹(ACPMP 6기)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동문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등산모임을 가졌다.

이날 동문들은 조안보건지소를

출발해 5백여 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있는 수종사를 거쳐 운길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로 등반했다. 산 정상에서 동문들은 김길수(ACPMP 6기 신성토건 대표)동문이 준비해 온 홍어회와 막걸리를 맛보며 정겹게 담소를 나눴다.

또 동창회는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고급 등산스틱 추첨 행사를 열고 등산 기념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에李政洙(ACPMP 2기)·이재철(ACPMP 3기)·朴相圭(ACPMP 4기)·하순기(ACPMP 9기)동문 및 4기 동기회가 금품을 후원했다.

사무총장, 김관택 산악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9월 합동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호룡곡산 둘레길을 따라 2시간여의 산행을 즐긴 뒤 해변에서 운동회를 열고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載)

무의도서 산행대회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梁好錫)는 지난 9월 28일 인천시 무의동 무의도에서 김재연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37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9월 1~30일 7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8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30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37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李相滿(수의학48-56)동문:학창시절 사진
▲金在仁(임학58-64)동문:임학과 합격 증명서(1958년) ▲金昌經(역사교육61-65)동문:노트, 학생증, 수강 과목 신청표 등 <사진> ▲劉熙鳳(섬유공학66-73)동문:공대 수업 교재류 등
▲權泰日(잠사학72-79)동문:입학시험지(1970~1972년), 학생증, 졸업기념 버클 등 ▲安健勳(대학원74-76)동문:교육학과 대학원 강의시간표(1974~1976년), 학생증, 학도호국단 창간호(1976년), 납입금 고지서류, 입학고사시험지(1966년), 대학원 수업 노트류, 총장 서신문 등
▲李容鑑(지질과학74-78)동문:문리과대학 지질학과 학생회 발간 잡지 ‘The Volcano’ 창간호(1959년)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추계골프서 李東應동문 우승

영문과동창회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에서 柳津(영문78-83)회장 등 20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추계골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우의를 다지며 라운드를 즐겼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만찬 및 시상식에서 지난 춘계대회 때 이글을 기록한 文炯久(영문73-77)동문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대회를 위해 柳津회장이 그늘집 및 만찬 비용을, 文炯久동문이 대회 참가자 전원의 캐디피를, 朴昌錫(영문76-83)동문이 시상품 일체를, 李鎭泳(영문77-81)동문이 1백만원을 출연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李東應(영문77-81)동문 △준우승 : 梁容碩(영문82-89)동문 △3위 : 文炯久동문 △메달리스트 : 황세영(영문84-91)동문 △통기스트 : 金一權(영문86-93)동문 △니어리스트 : 朴昌錫동문

골프대회서 친목 다져 ASP동창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成映穆)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여주시 자유CC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 참여한 동문들은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 속에 라

운도와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대회를 위해 成映穆회장을 비롯해 김효준(ASP 1기)·尹東漢(ASP 3기)·李在述(ASP 5기)·鄭孔植(ASP 5기)·조현익(ASP 12기)·宋相憲(ASP 12기)·김태희(ASP 12기)·金善權(ASP 23기)·金相根(ASP 24기)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방기현(ASP 10기)·朴耕民(ASP 17기)동문 △준우승 : 최명석(ASP 10기)·申憲澈(ASP 10기) △통기스트 : 민해홍(ASP 9기)동문 △니어리스트 : 宋孟根(ASP 24기)동문 △다바디상 : 尹宗根(ASP 12기)동문 △다파상 : 김재명(ASP 17기)동문 △다보기상 : 表鶴吉(무역66-70)교수 △잉꼬상 : 김광욱(ASP 12기)동문 △행운상 : 노승기(ASP 5기)동문

인문사회·경영 세미나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憲熙)는 지난 9월 30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목련홀에서 朴憲熙회장을 비롯해 김재원(AMPFRI 17기)·李峰萬(AMPFRI 21기)·이재곤(AMPFRI 27기)·임남수(AMPFRI 29기)수석부회장 등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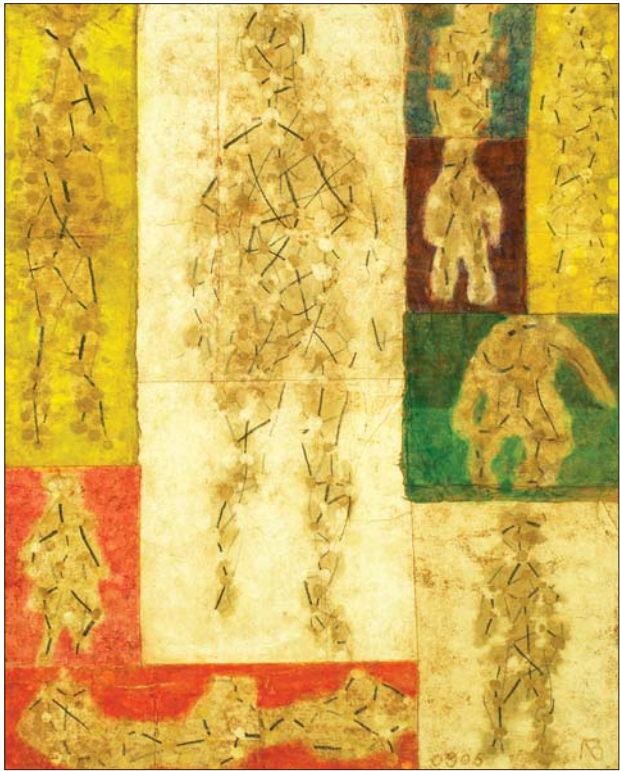
이날 오후 진행된 인문사회 분야 특강에서 연세대 金亨哲교수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 및 만찬이 끝난 후 이어진 경영 분야 특강에서는 홍익대 朴珉良(심리79-83)교수가 연단에 올라 ‘재미있는 시장경제 이야기 - 미신타파 60Q’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載>

동문 작품

지 상 전 시 회

金 成 嬉 作



별 난 이야기 0905, 한지에 먹과 채색, 66×54cm, 2009

<작가약력>

- ▲1986년 모교 회화과 졸업
- ▲2004년 오래된 정원 (서울 금호미술관) 등 개인전 5회
- ▲젊은 모색전 (파천 국립현대미술관 1990)
- ▲한국미술의 눈 - 성곡미술관 개관 6주년 기념전 (2001)
-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2005)

- ▲고요의 숲 - Meditative Forest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2006)
- ▲Homage 100, 한국현대미술 1970~2007 (부산 코리아아트센터 2007)
- ▲창원아시아미술제 (창원 성상아트홀 전시관 2011)
- ▲한중회화교류전 - 숲속다, 숲 그리고 침 (서울 유중아트센터 2012)
- ▲現모교 동양학과 교수

10·11 월 행사 캘린더

10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 상대동창회 바둑대회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
(문의 : 02-761-2278)

10월 25일(금) 정오

• SPARC동창회 골프대회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
(문의 : 02-880-4353)

10월 22일(화) 오후 7시

• 안양지부동창회 정기총회

안양 어반뷰티호텔 컨벤션을
(문의 : 010-5768-5878)

11월 1일(금) 오후 3시 30분

• 간호대동창회 고궁나들이

서울 와룡동 창경궁
(문의 : 02-740-8843)

10월 23일(수) 오후 7시

• HPM동창회 정책세미나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천홀
(문의 : 02-763-7505)

11월 2일(토)~3일(일)

• AMPFRI동창회 문화 맛기행

전라남도 일원
(문의 : 02-742-8863)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공율을 자랑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한일 신시대의 모색’ 특강 펼쳐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任晟準)는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정례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교 河英善(외교67-71)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과 한일 신시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모임에는 任晟準회장을 비롯 차

永秀(정치50-57)동문, 한국학중앙연구원 具範謨(정치52-56) 명예교수, 鄭官珠(외교82-89)총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차기 회장에 金允壽(정치67-71) 뉴욕 벨론은행 한국대표를 인준했다.

동창회는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을 생각하고 동문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 적절한 연사와 주제를 선정, 정기적으로 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남 동문기업 탐방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8월 29일 李弼雨회장, 李汪烈사무처장을 비롯한 동문과 가족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金俞世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경남 함양 소재 죽염전문기업 仁山家를 탐방했다.

仁山家は 金俞世수석부회장의 부친이자 죽염의 창시자인 仁山 金一勳선생이 창립한 기업으로 고품질 국내산 천일염을 원료로 한 죽염을 생산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 함양으로 향한 동문들은 仁山家の 죽염 제조장을 견학하며 죽염 산업 현장을 체험했다.

이후 인산연수원에서 기업 소개

브리핑을 들은 동문들에게 방문 기념품 증정식이 있었다.

이어진 오후 일정에서 동문들은 해발 7백73m의 지리산 오도제 제1문과 조망공원, 상림공원 등 함양 지역의 명소에 둘러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다.

‘축산의 날’ 한자리에 축산학동문회

축산학과동창회(회장 金泰奉)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2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3년 축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에는 관악산 등반 및 자녀 대학교정 투어가 있었고, 오후에는 총회, 바자회, 단체게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교수회관서 홈커밍데이 행사

전기동문회

전기동문회(회장 張世昌)는 지난 9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013년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張世昌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백8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각종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해 푸짐한 선물을 받고, 다과와 만찬도 나누며 동문 간의 우정과 가족 간의 추억을 남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 홈커밍데이를 지원한 기수인 40회는 19명의 동문이 참석해

다수참석기상을 수상했고, 成堉鮮(전기공학65-69)동문 가족과 黃秀喆(전기공학72-76)동문 가족이 각각 5명씩 참석해 다수가족참가상을 받았다.

이날 張世昌회장을 비롯한 李達雨(전기공학48-53)·李林擇(전기공학61-65)·鄭宗燮(전기공학61-66)·李相鎬(전기공학66-70)동문이 금품을 출연했다.

직장선교회와 비전포럼 기독교동문회

기독교동문회(회장 朴興日)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朱大俊)와 공동으로 제3회 서울대-직장선교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를 맡고 있는 朴興日(영어교육60-64)회장이 사회를 본 1부 기도회에서 朱大俊(AIP 31기)대표회장의 기도에 이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金明赫(사학56-61)회장이 ‘위 기복의 세 가지 길’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2부 포럼에서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과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철영 명예교수가 각각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 대응 전략방안’, ‘직장선교(일터선교)의 실태와 미래발전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송삼대 金英漢(철학67-71)명예교수, CBS 樞赫律(국사79-85)선교기획국장, 한국교회법연구원 金英勳원장, 직장선교연합회 이영환 지도목사 등이 논찬을 진행했다.

기독교동문회와 직장선교연합회는 매년 교회와 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邊>

편의점 사오정

사오정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기요... 여기... 피임기구 있어요?”

순간 사오정은 피임기구를 ‘필기구’로 잘못 알아듣고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저쪽 진열대에 있어요.”

여자가 진열대를 한참 찾더니 다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는 없는데요?”

“어, 이상하네? 있었는데... 지금 당장 급하세요?”

여자는 당황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순간 사오정의 대답을 들은 여자는 놀라서

기절했다.

“그러면 제가 쓰던 거라도 쓰실래요?”

가짜 선물

한 남자가 친구와 부부동반한 자리에서 부인에게 크고 예쁜 반지를 생일 선물로 주었다.

두 부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구가 물었다.

“자네 부인은 자가용을 원했었잖아?”

“그랬지.”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셨어?”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

“생각해 보게. 가짜 자가용을 어디 가서 구하겠나?”

<독자제보 환영>

매 듀오
www.duo.co.kr

1년안에 당신도

결혼해 듀오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 **성혼회원수 27,228명**

(2013년 8월 19일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3.8.19)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인원'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천안/울산/창원/전주/LA/뉴욕/뉴질랜드

전국공통 1577-8333 재혼/노블레스

세계당뇨의 날 기념 제3회 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세션 01 당뇨 합병증의 정복 - 한덕종

세션 02 당뇨로 부터의 자유 - 박성희

일시 : 2013년 11월 16일 오후 2시50분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제1부 세계당뇨의 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15시 ~ 16시

제2부 소아당뇨 학술제
16시 ~ 18시

제3부 소아당뇨 후원의 밤(저녁식사 및 경품추첨)
18시 ~

주최 :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 국회의원 우상호 / 국회의원 정세균 / 국회의원 박인숙

주관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협찬 :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주)

협력 : 당뇨와건강 동호회 /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명칭후원 :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특별시

장학금후원 : 다음희망해, 사랑의열매, 선한목자교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장학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



국회의원 우상호
(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박인숙



사회 개그맨 노정렬
(소아당뇨인협회 홍보부회장)



사회 미스코리아 조은주
(소아당뇨인협회 홍보대사)

학술제

세션 01 서울아산병원 한덕종교수 - **췌장이식 및 동시이식**
좌장 - 한대석 연세의대 명예교수(전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세션 02 서울대학교병원 박성희교수 - **이종장기이식**
좌장 - 이흥규 서울의대 명예교수(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특별공연 : 이브닝라이어
(연세대학교 의대&간호대 합창단)

※200명 선착순 무료 접수중 (문의처:02)572-0366,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화제의 동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金基雄단장



지난 7월 통일부는 金基雄(외교80-84) 동문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에 임명했다. 금단장은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이 중요한 전환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 하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9월 16일 5개월여 만의 개성공단 재개를 일궈낸 금단장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고쳐나가는 일로 남북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金동문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더불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남측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기관에서 법적 권한을 갖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구성된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구로, 운영 주체가 북한에서 남북한으로 바뀐 것이다.

남북공동위원회 남측대표로 활약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

행하기 위해 산하에 3통(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1백23개 입주업체의 답답했던 속을 뚫어준 금단장은 그 감회를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큰 시름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1일 북한은 남

이산가족상봉 개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정상화된 공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낳았다.

개성공단이 지난 4월 조업 중단됐던 것도 북한의 일방적인 행보에서 비롯된 사태였다. 아무리 공단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업 중단 이전에도 합의 사항은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잘하자’,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등의 추상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더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

개성공단 재가동 이끌어낸 일등공신

안정적 운영·신뢰 회복·여건 조성에 최선

어 뒀습니다.”

금단장은 이번 합의의 세 가지 주안점을 꼽았다. 첫째는 문서상의 보장으로, ‘일방적인 통행차단·근로자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기업에 투자보고를 한다’ 등의 과거보다 진전되고 명확한 합의 사안을 문서상으로 규정했다. 둘째로 남북공동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명시됐으며, 셋째로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언급됐다. 이로써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우수 기업들의 입주로 국제적인 공단이 되고 제도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시켜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이

자연스레 부담스러워지도록 만드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했다.

북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합의

“해외 우수 공단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특히 자유로운 통행과 인터넷 공급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남북관계를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한마디 부탁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남북 간에 6백회가 넘는 회담과 2백건이 넘는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 오르내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남북관계가 지향할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그리고 하나씩 신뢰를 쌓으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성공단이 그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邊)

공대 버나드 에거 국제화본부장

모교에 첫 외국인 보직교수가 탄생했다. 지난 9월 1일 모교 공과대학 정보화·국제화본부장으로 선임된 컴퓨터공학부 버나드 에거(Bernhard Egger 대학원03-08)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강웅’이라는 한국어 명패가 붙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회의가 많아지고 시간도 부족해 이제 조금 더 빨리 뛰어야 되지만 문제 없다”고 유창한 우리말로 근황을 전했다.

에거 본부장의 직책명은 그가 맡은 두 가지 과제를 보여준다. 컴퓨터공학부 교수로서 공대 전산시스템 관리·업무 전산화 등의 정보화와 더불어 외국인인 그에게 맞춤형 듯한 국제화 업무이다.

2012년 기준 교내 외국인 교수는 2백여 명,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은 2천여 명으로 해마다 외국인 학내 구성원이 늘고 있다. 이들은 모교에 처음 와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나 한국어로만 구성된 홈페이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그 중간’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

에거 본부장이 처음 한국에 온 것은 2003년으로, 그는 10년 전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현재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학사 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영문 홈페이지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경우 바쁘게 공부하다 졸업조건을



을 것 같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거 본부장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왔다. 당시 알고 있던 한국어는 ‘사랑해요’뿐이었다.

“웨스트(West)보다 이스트(East)에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죠. 한·중·일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스위스에서 한국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이미지가 좋았어요.”

또 대도시에 자리해 외국인으로서 더 편리할 것 같고 웬지 느낌이 좋았다는 이유로

스위스 출신 모교 첫 외국인 보직교수

한국생활 10년 노하우로 외국 교수·학생 도와

잊어버리고 졸업할 때쯤 ‘Oh my God!’을 외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모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받아

학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은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진다.

“지금 여기 있는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좋았다고 말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오게 되는 거죠. 컴퓨터공학 하면 무조건 미국으로 간다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 가면 참 괜찮

모교를 택한 그는 처음에는 사뭇 다른 연구실 풍경에 적응하기 바빴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저녁 여섯시면 연구실을 나와서 바이올린에 마라톤까지 취미 생활하느라 바빴는데 한국 학생들은 취미가 공부인 거예요. 밤늦게까지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요. 외국인 티 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려니 힘들었지만 덕분에 연고 없는 한국에서 랍의 동료들과 가족같이 지낼 수 있었죠.”

한국인의 성실성으로부터 빠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는 한편 “요즘 창의성 얘기가 많은데, 한 곳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컴퓨

터 시스템·플랫폼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그는 “러닝머신 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며 그의 학생들에게도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취미 하나쯤은 가지는 게 좋다”고 권하는 등 양국에서 느낀 좋은 점을 한데 모으려 노력 중이다.

한국이름 ‘李强熊’...4개 국어 구사

스스로 지은 한국 이름 ‘이강웅’의 유래는 뜻밖에도 그의 이름 ‘Bernhard Egger’에 숨어 있었다. ‘Egger’의 ‘e’에서 성인 ‘李’를, Bernhard를 쪼개 옛 독어로 ‘강한’의 뜻을 가진 ‘hard’에서 ‘強’을, 독어로 ‘곰’인 ‘bern’에서 ‘熊’을 따왔다. 스위스 공용어인 독어와 불어, 거기에 영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에게서 태어난 기발한 이름이다.

두 나라의 최고 국립대학에서 수학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세계 명문대의 필수 요소를 묻자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며 고심했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MIT같이 세계적인 학교는 연구뿐만 아니라 배출하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최고지요. 전문 엔지니어를 만드는 공대를 졸업하고도 회사에 들어가면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점을 떠나 모교 공대 출신이면 ‘믿고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는 인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秀)

화제의 동문



제11회 오뚜기 대학생 디자인&광고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 공 모 내 용 ① 오뚜기 기업 통합캐릭터로 활용가능한 3D 입체 캐릭터 디자인
② 오뚜기 패키지 디자인 및 용기 형태디자인 리뉴얼 (품목 자유선택)
- 작품접수기간 2013년 10월 1일(화) ~ 2013년 10월 21일(월)
- 접 수 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8 오뚜기센터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접수처
문의: 02) 2010-0675 / 이메일: ycmoon@ottogi.co.kr
- 응 모 자 격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동 작품일 경우 팀당 2명에 한함)
- 출 품 작 수 팀당 2점에 한함
- 출 품 방 법 하드보드지 430x310mm에 부착 (우드락 사용금지, 재활용불가)
후면에 작품설명, 성명, 학교, 학과, 전화번호, 현주소, 이메일 주소 기재 부착
- 발 표 주식회사 오뚜기 홈페이지 www.ottogi.co.kr
2013년 월간디자인 12월호 / 월간디자인 홈페이지 www.design.co.kr
- 시 상 내 역 대상1점(상금500만원, 상패수여) / 금상1점(상금300만원, 상패수여)
은상1점(상금150만원, 상패수여) / 동상1점(상금100만원, 상패수여)
장려상1점(상금50만원, 상패수여)

광고 공모전

- 공 모 내 용 TV광고 및 인쇄광고 제작물
- 공 모 과 제 참깨라면, 옛날사골곰탕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 작품접수기간 2013년 10월 1일(화) ~ 2013년 10월 21일(월)
- 접 수 처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2층 주식회사 애드리치
이메일접수 / contest@adrich.co.kr
- 응 모 자 격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동 작품일 경우 팀당 4명 이내)
- 출 품 작 수 팀당 2점에 한함
- 작 품 규 격 [TV광고] 사이즈:A3(297x420mm) 스토리보드 양식에 맞춰 12컷 이내(1장당 4컷)
해상도:72dpi(842x1191pixel) 파일형식:1MB 미만
jpg파일 3개 이내(한 파일당 4컷, 총 12컷 이내)
[인쇄광고] 사이즈:A4(210x297mm) 해상도:200dpi(1654x2339pixel)
파일형식:2MB 미만 jpg 파일
- 발 표 주식회사 애드리치 홈페이지 www.adrich.co.kr
- 시 상 내 역 대상1점(상금300만원, 상패수여) / 금상1점(상금200만원, 상패수여)
은상1점(상금100만원, 상패수여) / 동상1점(상금50만원, 상패수여)

〈디자인&광고 공모전 공통사항〉

*자세한 사항은 오뚜기 홈페이지 및 애드리치 홈페이지 참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식회사 오뚜기에 있으며,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후 수상작 중 타인의 디자인을 표절(국내외)한 것이 드러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전액 회수.

*공모과정은 선택하거나 중복 응모 가능

주최:  주식회사 오뚜기 

“고령화 사회, 노인을 ‘집’ 아닌 ‘자원’으로 봐야”

동문을 찾아서

세계노년학회 車興奉회장

현재 8억명인 60세 이상 노인들이 2050년에는 2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UN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노년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車興奉(사회62-69)동문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하나의 집으로 여기는 경향이 큰데 앞으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을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 : 李東植(백남준문화재단 이사)·논설위원

— 지난 6월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서울대회가 35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린 뜻깊은 대회였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86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해 3천5백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20번의 대회 중 가장 큰 대회였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도 노인문제에 대해 아주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발표됐지요. 특히 21세기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의 건강 문제와 어떻게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 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공식명칭은 세계노년학·노인의학학회(IAG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인데 이를 줄여 세계노년학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년학·노인의학 관련 학회로 ‘전 세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0년 창설돼 초창기 매년 대회를 개최하다가 2~3년씩 기간을 늘렸으나 1980년대에 4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서울대회가 제20차 대회였습니다.”

—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의료보험,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번 대회도 전체적인 주제가 ‘헬스 에이징 & 액티브 에이징(Health Aging & Active Aging)’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에 대한 것이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부양에 대한 걱정으로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짐이 아닌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 발표도 어떻게 하면 노년을 활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발표됐을 만큼 헬스 에이징과 액티브 에이징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하나의 큰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직도 맡고 계신데, 협의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다면.

“사회복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문제’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창설돼 올해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 車회장은

194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1969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중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주도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세계노년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1998), 청조근정훈장(2003)을 수상했다.

‘50년 외길’ 사회복지 삶 걸어와 ‘세계에이징센터’ 국내 건립 추진

민간의 사회복지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9월 7일이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이었죠. 이 날의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올해 14회를 맞이합니다만, 20세기 마지막 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가 제정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이제 가난으로 인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장관을 맡은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우리나라 복지정책 수준에 대해 ‘7부 능선에 오른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사회복지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6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70년대 후반 사회복지도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지만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봅니다. 등산에 비교하자면 현재 7부 능선에 올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복지제도는 물론 사회복지 시설 및 전문인력 증가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3부 능선이 남았군요.

“그렇죠. 앞으로 3부 능선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속도와 형태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상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갖춰져 있는데 아직 내실은 부족한 면이 큰 만큼 내실을 다져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요.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국

민들은 인간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지고, 국가 역시 권리를 보장하면서 적절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관된 질문 같은데요, ‘세계에이징센터’의 국내 설치·운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세계에이징센터는 이번 세계노년학 대회를 통해 제가 주창한 사안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노인’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수는 8억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2050년에는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앞으로는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중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학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노인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계에이징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세계고령화총회 개최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UN에서 진행되는 세계고령화총회는 세계 각 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노인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방향을 논의·제시하고 있습니다. 19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난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3차 회의는 2022년에 개최되는데 이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앞선 2번의 대회를 유럽에서 개최한 만큼 아시아에서 개최할 명분도 있고, UN의 노인문제에 관한 공식 자문기구인 IAGG의 회장으로 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생에서 노년기는 사라지는 시기가 아닌 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노인을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자원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문 개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해 건강한 활동으로 고령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邊廷奎기자·정리=林香默기자)



NEVER STOP EXPLORING™

이제부터는 기계로는 갈 수 없는 길

정적을 깨뜨리는
엔진소리도 빌딩숲도 없습니다
기계가 아닌 오직 인간의 힘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산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스스로가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노스페이스는
더 큰 힘을 갖게 해줍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다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평생사랑

국민의 행복한 내일 튼튼한 금융, KB가 함께합니다

KB금융그룹 3천만 고객 달성

(2013년 6월 말, 개인고객 기준)



3천만 고객의 사랑, KB평생사랑 이벤트

[기간] 2013.7.22(월) ~ 9.30(월)

[대상계열사]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

[응모방법] 본 이벤트는 개인고객대상이며 참여대상 및 방법 등 이벤트 상세내용은 해당 계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13.10.15(화)예정, 해당계열사 홈페이지 발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KB 국민은행 * KB 국민카드 * KB 투자증권 * KB 생명 * KB 자산운용
 * KB 부동산신탁 * KB 인베스트먼트 * KB 신용정보 * KB 데이터시스템 * KB 저축은행

KB 금융그룹

모교 QS 세계대학평가 35위에 올라

3년 연속 상승...역대 최고 순위 기록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가 올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35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 50위, 2011년 42

위, 2012년 37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35위를 기록하며 32위를 차지한 도쿄대와의 격차를 줄이게 됐다. 지난 6월 실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위에 올라 9위에 그친 도쿄대를 앞선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의 MIT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

으며 미국의 하버드대와 영국의 케임브리지대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가 24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홍콩대(26위)와 도쿄대(32위)가 차지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1백위권 안에는 모교와 KAIST(60위)가 자리를 차지했으며, 2백위권 안에는 지난해 97위에서 순위가 하락한 포스텍(1백7위)과 연세대(1백14위), 고려대(1백45위), 성균관대(1백62위)가 각각 순위에 랭크됐다. <표 참조>

모교는 해외 학계에서의 인지도를 알 수 있는 ‘학계 평판’ 항목에

2013년	2012년	대 학(국가)
1	1	MIT(미국)
2	3	하버드대(미국)
3	2	케임브리지대(영국)
4	4	UCL(영국)
5	6	임페리얼컬리지(영국)
6	5	옥스퍼드대(영국)
7	15	스탠퍼드대(미국)
8	7	예일대(미국)
24	25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
26	23	홍콩대(홍콩)
32	30	도쿄대(일본)
35	37	서울대(한국)
60	63	카이스트(한국)
107	97	포스텍(한국)
114	112	연세대(한국)
145	137	고려대(한국)
162	179	성균관대(한국)

서 32위를,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졸업생 평판’ 항목에서 46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모교는 교수들의 한층 활발해진 국제 학술 활동과 졸업생 역량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논문 피인용수 증가를 통한 연구영향도 분야 개선을 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QS 세계대학랭킹은 학계 평판 40%, 졸업생 평판도 10%, 연구영향도(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지수) 2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10%를 합산해 평가한다.



제10회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국내외 1백75개 공·사기업 참가

모교는 지난 9월 3~5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행정관) 앞 잔디광장에서 제10회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모교 경력개발센터(소장 金泰完)가 주관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분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하반기 채용시즌을 앞두고 우수인재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정보 획득을 원하는 예비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화째를 맞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SNU Global Challenge’라는 부제로 기획해 1백75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했다. 특히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사회적 요구 및 해외 취업을 바

라는 내국인 학생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창업 상담부스 △해외인턴 및 GTP(Global Talent Program) 상담부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를 모교 기술지주회사, 중소기업청,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KOTRA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04년 첫 문을 연 모교 채용박람회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의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모교 재학생뿐 아니라 전국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외부인에게도 적극 홍보, 개방하는 열린 채용박람회로 기획·운영됐다.

베트남 의학교육 지원 활동

의과대학

의과대학(학장 姜大熙)은 지난 9월 26~27일 베트남 ‘보건의료인력개발센터’ 설립 협의를 위해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李鍾求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를 호치민시 소재

호치민의학대학과 175병원에 파견했다.

이는 지난 7월 23일 모교 의대와 호치민의학대학·175병원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준수를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26일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강화 전력을 위한 학회발표를 시작으로

27일에는 흥부외과학교실 金雄漢 교수, 성형외과학교실 金石華 교수, 영상의학교실 李裁榮 교수, 방사선종양학교실 엄근용 교수 등 국내 전문가 팀과 호치민의학대학 및 175병원 관계자들의 과별 현황과 과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지 보건의료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핵심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세부별 지원 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중국 연길시에 건강센터 개원

모교 병원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의 선진의료시스템을 전수받은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연길시중의병원 건강검진센터’가 지난 9월 7일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연길시 중의병원에서 개원했다.

이는 중국에서 국내 의료기관 브랜드를 사용하는 첫 검진센터로 브랜드뿐 아니라 노하우와 의료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교 병원과 중국 연길시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길시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최첨단 건강검진센터 설립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2011년 7월 자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교 병원 강남센터는 연길시중의병원에 검진센터 설립에서부터 기획·운영에 대한 선진 노하우를 제공했다.

吳秉熙원장은 “이번 연길시중의병원 검진센터 설립·운영 자문사업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검진시스템을 전파해 중국내 의료 한류를 주도하는 한편 조선족 동포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을 축제 ‘시선 공포증’ 풍성

본회에서 1천만원 후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앞 잔디밭과 문화관 등지에서 ‘시선 공포증’을 주제로 2013년 가을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기획한 ‘축제하는 사람들’ 李娜媛(소비자아동10입)대표는 “시선 공포증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관념을 표현한 말로서 사람들은 혼자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하는 시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를 ‘공포증’이란 말로 표현했다”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꼭 나쁘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더 공감하고 즐겨보자는 의미로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세상을 풍자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인 ‘눈치코치 피었습니다’는 이번 축제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게임 참가자 중 최후의 1인에게는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따가운 시선 콕콕’, ‘손목이 절경절경’, ‘봉천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게임이 마련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이번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했다.

‘SNU Health Week’ 개최

체험·학술·특별행사 마련

모교는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9월 25~27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잔디밭 등에서 ‘2013 서울대학교 건강주간(SNU Health Week)’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모교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건강캠퍼스 및 건강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학술·체험·특별행사 등으로 나뉜 이번 행사에서 체험행사는 행정관 앞 잔디밭 26개 부스에서 금연 체험관, 스트레스 해소, 치

유와 회복의 정원, 건강식품 홍보 및 시음, 외국인 학생 진료상담, 건강식생활 등으로 진행됐다.

학술행사는 비만, 음주, 성(性), 다이어트, 약물, 건강식품 등의 주제로 모교 의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건강 전문가들의 특강과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밖에 힐링음악회를 비롯해 교수와 학생, 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건강걷기(순환도로 4km), 보행치유 워크숍 등 다양한 특별행사가 마련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행사 기간 내 교내 일부 학생

식당에서는 요일별로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특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글 학습용 앱서비스

한국어교육센터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원장 鄭相俊)는 지난 9월 4일부터 외국인 대상 한글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됐으며, 자음 및 모음 따라 쓰기, 동영상 보며 발음 따라 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 설명과 학습 안내를 담은 설명서도 제공하고 있다. <香>

중국 인민대와 교류협력 논의

모교와 중국 인민대(총장 첸 율루)는 지난 9월 23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양교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교 吳然天총장은 첸 율루(CHEN Yulu) 총장과 접견을 갖고 양교 간 학생 교환 확대 및 교수 교환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

안을 모색했다.

1937년 국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인민대는 경영,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가 중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모교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좌로부터 네 번째 吳然天총장, 다섯 번째 첸 율루 총장

멘토링 봉사활동 펼쳐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모교 공식 봉사단체인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단장 李知殷)은 지난 9월 23~25일 연평도 소재 연평중·고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및 진로진학 맞춤형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은 모교 재학생의 지식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 인성 함양을 돕고자 2006년 출범한 단체다.

한편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 현장을 방문해 '세상에는 길이 아주 많아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재학생의 소리

몸·마음의 수련 통해 맑은 정신 얻어



崔 惠 仁
(동양화13입)
冠岳氣天 회장

중양무예동아리 氣天은 기천문이라는 전통무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천, 혹은 기천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 보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학과 동기의 현란한 연변에 넘어가 가입하게 됐지만 1학년 때엔 과방이 없는 학과 특성상 기천동방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할머니 집 같은 포근함을 가지고 있는 동방'이라는 말에 결정적으로 동아리를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천에는 다시 떠올리자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구슬픈 암흑기가 존재했습니다. 2011년 가을, 불과 2년 전 일이에요.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동아리의 명맥을 이어 온 04학번 모 수련부장 선배의 졸업은 11학번 신입생들에게 뜻밖의 일이 되고, 신입생들의 가슴을 새로운 슬픔에 터지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찾아온 이 슬픔은 신입생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다분했지요. 가르쳐 줄 사람이 사라진 위기의 동아리는 어미 잃은 철새와도 같았죠. 이들은 배달음식만을 시켜가며 쫓겨날 날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이에 2012년, 공대 모 학과 2학년들은 자구책

을 짜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신림동 기천문 수련원에 다니기로 한 것이지요. 1990년대 중반, 관악에는 무예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2013년, 관악에 남아 있는 무예 동아리의 숫자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셀 수 있게 됐죠. 기천은 여러 번에 걸친 동아리 존폐 위기를 벗어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예 분과로 분류된 동아리이지만 사실 신입회원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강도 높은 수련을 한다거나 회원들이 거친 것은 아닙니다. 이걸 회원들이 극도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롤중독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천문이라는 무예 자체가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 맑은 정신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천에는 컴퓨터공학부, 동양학과, 수의학과 학생들이 모여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 특강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원장 金俊基)은 지난 9월 10일 '스웨덴의 사회정책 100년'을 주제로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보건사회부 장관(사진)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 언급하며 "스웨덴 사회 모델에서 주요 관심 주제는 사회적 평등(고령화 문제), 양성평등, 사회적 이동성(세대간 조화)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게 해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과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업주와 노조의 대타협의 의미, 기본적인 신뢰의 중요성, 한국사회의 노후문제 및 세대 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이지 콜라니 초청 강연

공과대학 차세대자동차研

공과대학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소장 高尙根)는 지난 9월 16일 모교 박물관에서 디자인계의 거장 루이지 콜라니(Luigi Colani·사진)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모교 조형연구소와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KDRI)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강연에서 루이지 콜라니는 'Bio Design의 선구자'로 불리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과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또 자동차, 카메라, 가구 등 디자인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그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미래 디자인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루이지 콜라니는 독일 베를린대와 파리 소르본대에서 각각 회화와 공기역학을 전공한 후 제품·환경·인테리어·패션 디자인 등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래 지향적 작품으로 세계 디자인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香)



홍성브레이크

대한민국 1등 품질로 인정받았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품질의 힘!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이 보여드립니다.



자가용 프리미엄골드
(PREMIUM GOLD)

자가용 골드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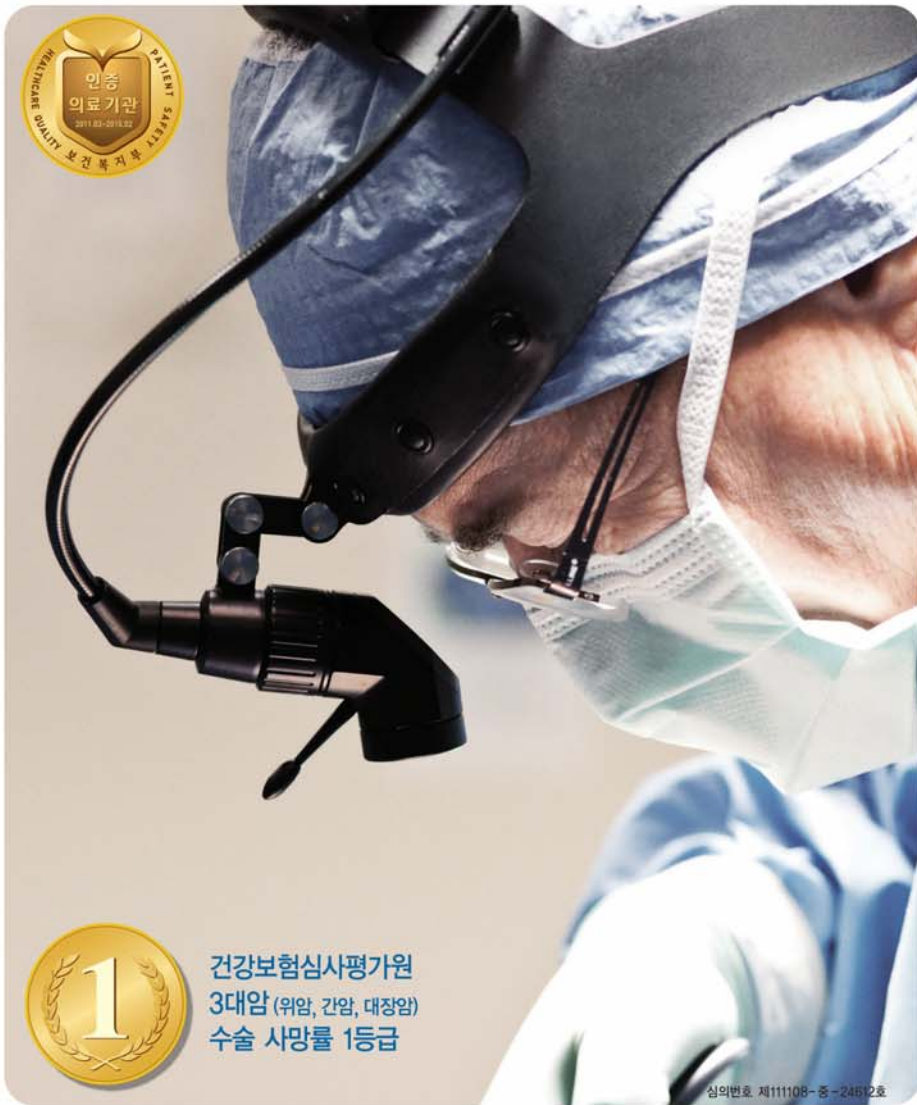
택시용 벡프로
(VECPRO)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 지표



주최 | 한국표준협회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한국품질경영학회



병원장 한설희(의학 75-81)

당신의 큰 병과 싸워 줄 튼튼한 병원

건국대학교병원은 각 분야의 과별 전문의들이
첨단 장비와 우수기술로 정밀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Partner for Your Life
건국대학교병원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1588-1533 • www.kuh.ac.kr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방향에서 병원 로비로 연결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변할 때 한발 더 앞서가겠습니다.

“고객을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에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유라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XR YURA
유라코퍼레이션

■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 스마트 정션박스(Smart Junction Box) ■ 차량통신시스템(Invehicle Network System)
■ 자동차 전장모듈(Electronic Module) ■ 고전압 HEV 커넥터(High Voltage HEV Connector)
❖ 본사·공장 : TEL 070)7878-2400 / FAX 043)238-8599 ❖ 유라R&D센터 : TEL 070)7878-1000 / FAX : 031)780-6801 ❖ www.yuracorp.co.kr

정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7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8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仁垸교수·경제학

67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2년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학사학위, 7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사회과학대장, 금융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張達重교수·정치외교학

65년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9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기획실장, 통일부 및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장 등을 지냈다.



金赫교수·수리과학

66년 모교 수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4년 모교 대학원에서 수학과 석사학위, 83년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8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장, BK21 수리과학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金慶烈교수·지구환경과학

67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해양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해양연구소장, 지구환경과학부장, BK21 지구환경과학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吳林象교수·지구환경과학

68년 모교 해양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미국 올드도미니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해양학과장, 해양연구소장, 한국해양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全鍾雨교수·통계학

67년 모교 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통계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장, 복잡계통계연구센터 소장, 한국통계학회 회장, 농수산 정보통계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徐正憲교수·화학

67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5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연구부처장, 분자촉매연구센터소장,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아시아화학회 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李東鎭교수·기계항공공학

68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 79년 프랑스 푸아티에대에서 항공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장,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鏞鎭교수·전기정보공학

66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학위와 전기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장,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장, 전기·컴퓨터공학부장 등을 지냈다.



韓民九교수·전기정보공학

67년 모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4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석사학위,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공과대학장,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대한전기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韓相榮교수·컴퓨터공학

72년 모교 응용수학과를 졸업한 뒤 77년 모교 대학원에서 계산통계학과 석사학위, 83년 미국 오스틴대에서 계산통계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계산통계학과장,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컴퓨터설계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李炯周교수·농생명공학

66년 모교 농화학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식품공학 석사학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식품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安京煥교수·법학

66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학위, 85년 미국 산타클라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7년 모교에 부임해 기획실장, 법과대학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胡文赫교수·법학

68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5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법과대학장, 교수협의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基奭교수·교육학

67년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77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5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학생처장, 기록관장,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 한국 대표부 특명 대사 등을 지냈다.



李光淑교수·독어교육

66년 모교 독어교육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9년 독일하이델베르크 칼루프레히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외국어교육연구소장,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장,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회장,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聖默교수·물리교육

67년 모교 물리교육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에리조나대에서 물리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9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한국물리학회 물리교육분과 및 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 등을 지냈다.



金得俊교수·약학

66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9년 미국 포드햄대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교육매체제작소 수리부장, 약학대학 부학장, 종합약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沈昌求교수·제약학

67년 모교 제약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과 석사학위, 82년 일본 도쿄대에서 제약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약학 교육연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법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應七교수·제약학

67년 모교 제약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과 석사학위, 80년 일본 도쿄대에서 제약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약학대학 부학장, 종합약학연구소장, 대한약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등을 지냈다.



姜煥雲교수·성악

71년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76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양인 최초 베를린 오페라하우스에 정단원으로 입단했다. 95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오페라연구소장, 음악대학 성악과장 등을 지냈다.



盧幸圭교수·의학

68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대한뇌졸중학회 초대 회장, 한국즐거세포학회 회장,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분당서울대병원 설립본부장 등을 지냈다.



文信容교수·의학

74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의학연구원 연구의학연구소장, 대한유전의학회장, 아시아-태평양 불임학회 회장,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崔在甲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암연구소장 및 암연구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 1·2대 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세계대장외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安允玉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보건학과 석사학위, 77년 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에방의학회장 등을 지냈다.



趙秀憲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보건학과 석사학위, 82년 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장, 대한에방의학회 이사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李承旭교수·보건학

67년 모교 수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보건학과 석사학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해 보건대학원장, 보건환경연구소장,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회장,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50th Anniversary Jeonju University 개교50주년 JJ wake up Superstar 캠페인 ②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 전주대학교

별 볼일 없네!

JJ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성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합니다. 내안에 숨어있는 수퍼스타성을 깨워드립니다.

WAKE UP SUPERSTAR - 전주대학교

취업역량 지원 Knowledge Universe 동기부여 주간 창업지원 통합교양 자기개발 학기 StarT CA제도 진로탐색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구 분	원 서 접 수
수시2차	2013.11.11(월) ~ 11.15(금)
정시모집	2013.12.20(금) ~ 12.24(화)

※ 입학홈페이지 : <http://iphak.jj.ac.kr>
※ 입학지원실 : 063-220-2700~6
※ 입학사정팀 : 063-220-3234~5
※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함이 생깁니다 경남은행

당당한 경남을 위해 뭉쳐라!

경남은행과 거래하면 경남의 경제를 살립니다
340만 경남도민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당당한 경남을 위해 힘있는 경남을 위해 경남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희미한 옛 그림자의 사랑

梁 永 洙(영문67-72)

소설가



청수 웅이 이번 낙산클럽 모임에 참가한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60년대 중엽에 낙산 기숙의 ㄱ대에 다닌 대학동기생들이 낙산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많이들 모인다는 말을 일찍부터 들어 알기는 했지만 원거리 나들이라는 부담 때문에 선뜻 참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다 이 모임에 얼굴을 내밀 때 그를 알아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임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그만큼 청수 웅의 대학시절은 친한 친구도 없고 오래 남을 만한 추억도 별로 없이 삭막한 허허벌판이었다. 친구 사귄 돈도 시간도 없는 고학생이었고, 이름 없는 시골 고등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집단인 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향 친구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청수 웅이 다니던 학과는 입학정원이 10명

롭게 한마디 뽑았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조차도 없는 사람은 희미한 옛 그림자의 사랑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낙산클럽 모임의 정신으로 알고 불원천리 탐라국에서 올라왔습니다... (‘희미한 옛 그림자의 사랑’은 낙산클럽 휴파 안에 대화방 문패에 달린 문구임을 청수 웅은 알고 있다.) 겉쫓하게 한마디 하긴 했지만, 이 같은 인사말이 부적절하지는 않았는지 자리에 앉은 내내 불편한 심기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청수 웅의 대학시절이 삭막한 허허벌판이었다고는 하나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추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ㄱ대 합창단에 한 축 끼여 노래불렀던 추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 시절 청수 학생이 그 합창단에 가입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

실력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표나게 들리도록 해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마음 일색이었던 것이다. 간혹 그를 합창부에 가입시킨 선배가 결장하는 날이면 그는 아예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몇 명 되지 않는 잘 모르는 남학생들 옆에 앉아있는 것도 거북했지만, 옆자리에서 표준발성법을 가지고 그의 꺾끄러운 음성을 차폐시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개근이었다. 합창발표회 날에는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그 날 합창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그는 객석 맨 뒷자리에 숨을 죽이고 앉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어쨌거나 청수 학생으로서는 ㄱ대 합창단에 한 축 끼어들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음은 허허벌판 사막 속에 꽃피는 오아시스 같은 일이었다. 미흡하게나마 명곡 노래들도 여러 곡조 배울 수 있었다. 그 때 그가 배운 노래 중에 제일 강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교향곡을 편곡한 ‘보람이 읊니까’라는 노래이다. 편곡은 그 당시 ㄱ대 합창부 지휘자가 했었다. 비창 교향곡은 그리 쉽지 않은 작품이지만 청수 웅이 지금도 아무 데서나 이 교향곡의 한 소절만을 듣고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대학시절 한 학기 동안 어설프게 합창부에 기웃거렸던 전력의 덕분이다. ‘以夷制夷’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되,

의 언젠가 존재하거나 했었나 아리송해지기조차 한다.

오래 전 옛날의 기억이 깜빡깜빡해질 때마다 마음 한 켠이 허전해져움을 느끼던 청수 웅은 생각 끝에 이번 낙산클럽 모임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컴퓨터 메모리라면 한 번 입력한 것은 지워지는 일이 없겠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는 메모리 강화라는 것이 필요할 터이었다. 나는 컴퓨터가 아니다. 새로운 입력이 있어야 메모리 강화가 된다. 나의 흐릿해진 메모리 수첩에 뭔가를 써넣기 위해 과거의 시간과 장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간직한 메모리 수첩의 다른 異本들을 잠시 들여다 볼 수는 있을 거 아닌가. 나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을 사람들, 옛날 ㄱ대 합창부에서 노래하던 동창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낙산클럽 회원 중에도 있을 것이 아닌가.

청수 웅 댄에는 큰 마음 먹고 참가한 오늘 모임이다. 이번 모임의 프로 중에는 3개월마다 열리는 세미나 순서도 들어 있었는데 청수 웅은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지원했다. 옛날 한 울타리 안에서 추억을 공유했던 학우들과 재회하고 메모리 강화를 기하는 기회가 될 터이었다.

동창회가 시작돼 한 시간 가량, 세미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청수 웅은 지금 총회 순서의 진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좀 전에 있었던 자신의 연구발표에 대한 떨떠름한 뒷맛 때문이다. 동창들이 귀담아 들어줄 만큼 그의 연구발표가 흥미를 끌지 못한 것만 같다. 그러나 그거야 아무려면 어떤가. 막상 얼굴들을 대하고 보니 그를 알아보는 옛날 학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대로 동창회에 나온 기분이 난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늘 나온 대여섯 명 여자회원들 중에 그가 기억하는 얼굴이 두 사람이나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옛날 합창부에서 노래 불렀던 얼굴들이다. 그는 이들의 이름까지도 용케 기억하고 있다. 서은희와 김영숙이었다.

청수 웅은 오늘 모임의 앞으로 남은 순서에 대해 궁금증과 불안이 커진다. 아마도

총회 순서가 끝나면 자리를 옮겨서 만찬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뒤풀이가 있을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마지막 뒤풀이 장소인 단란주점 노래방에까지 옛날 합창단 동지 한 사람은 동행했다. 서은희가 아닌 김영숙이었다. 노래방까지 간 사람 수는 확 줄어서 열 명 아래이다. 이것도 그가 바라는 바였다. 노래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옆자리에 앉을 기회를 보아 김영숙에게 물어본다. ‘보람이 읊니까’가 기억나십니까. 박찬석 작곡의 가곡 ‘낙엽’은요.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술기운이 막 달아오른다. 까놓고 묻지 않을 수 없네, 쟁. 나, 전청수의 얼굴은 기억하십니까, ㄱ대 합창단에서 노래 불렀던 거 잊어 먹었는데요, 이거, 정말....

“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교향곡을 들을 때 가슴에 와닿는 비탄의 감정은 생명의 슬픔과 세상의 고달픔을 모두 녹이고 승화시키는 것 같다. 요동치던 슬픔이 다소곳한 슬픔으로 변한다고나 할까. 대가들의 명곡과 명연주에 대응하는 맞을림 공명판을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만 같다.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밖에 안 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더 적어지는 소위 비인기 학과 소수집단이어서 어떤 종류의 학과 행사이든 잘 성사되는 적이 없었던 관계로 그만큼 지면을 넓힐 기회가 적었다.

그전에 이 동창회에 나왔을 때의 기억도 떨떠름한 채로 남아있다. 그 때엔 입학 40주년 기념 송년행사로 더욱 성대하게 열렸던 관계로 200명 남짓인 회원들 중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했는데, 행사 진행 도중에 낙산클럽 총무는 청수 웅처럼 모임에 처음 나온 회원들을 무대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인사소개를 시키고 박수를 유도했었다. 꼭 못 올 데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 하던 청수 웅은 자기가 호명되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가더니 호기

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준수한 미남이면서 서울 소재 명문 고교 출신인 학과 선배의 꺾드감을 받고서 가능한 일이었다. 대강당을 겸하는 합창 연습실에 들어가 앉기는 했지만 천하의 명문대학 합창단 수준을 따라가기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합창단의 주류는 여학생들이었다. 이 여학생들을 합창 연습실 밖에서 만나 얼굴 마주하고 목소리 들어보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이들 예쁘고 세련된 여학생들에게서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운데에 그 자신의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는 것, 그것은 설렘이었고 두근거림이었고 황홀이었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한껏 낮춰야 했다. 고운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고, 약보 볼 줄도 음정 맞출 줄도 잘 모르는 한심한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교향곡을 들을 때 가슴에 와닿는 비탄의 감정은 생명의 슬픔과 세상의 고달픔을 모두 녹이고 승화시키는 것 같다. 요동치던 슬픔이 다소곳한 슬픔으로 변한다고나 할까. 대가들의 명곡과 명연주에 대응하는 맞을림 공명판을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만 같다.

이런 것이 늙어간다는 것인지, 요즘 들어 청수 웅은 옛날의 기억들이 가물가물 희미해질 때가 있다. ㄱ대 합창부에서 배웠던 노래가 어디에서 들려올 때는 노랫소리가 일으키는 추억의 감동이 감해지는 일은 없는 것 같되(그는 이것을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래들을 배웠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은 아슬아슬 흐릿해지는 것만 같은 것이다. 때로는 그런 일이 과거

동 정

수 상

▲劉鐘海(법학50-54 연세대 명예 교수·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분회 부회장)=지난 10월 13일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吳世哲(금속공학55-60 서울엔지니어링 회장)=지난 9월 4일 제37회 국가생성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崔吉洙(의학55-61 모교 신경의과학교실 명예 교수)=지난 9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훈장 수훈.

▲金大中(행정58-63 조선일보 고문)=오는 11월 8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경암학술상(특별상 부문) 수상.

▲朴武益(철학62-67 한국궐림조사연구소 회장·인문대 동창회장)=지난 8월 30일 제19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朴商鎭(무역70-77 삼성SDI 대표)=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

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미래산업창출부문) 수상.

▲李榮薰(경제70-78 모교 경제학부 교수)=오는 11월 8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경암학술상(인문사회부문) 수상.

▲南海鎭(종교72-76 경북 구미시장)=지난 8월 21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경영자상 수상.

▲權五坤(법학72-76 국제유교전법재판소 재판관)=지난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盧奉洙(식품공학72-78 서울여대 교수)=지난 8월 29일 제8회 오뚜기학술상 수상.

▲郭守根(경영73-77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10월 10일 보성교우회로부터 제20회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수상.

▲崔昌坤(기계공학73-77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기업가정신부문) 수상.

▲林英鹿(국어교육73-77 KB금융그룹 회장)=최근 미래창조과학

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창조금융부문) 수상.

▲許南植(행정78-82 부산광역시 시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기업가정신부문) 수상.

▲朴炳柱(의학74-80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한국약품안전관리원장)=지난 8월 25~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약물역학회(ISPE) 제29차 학술대회에서 공로패 수상.

▲李忠範(법학78-82 사단법인 정해복지 설립 이사장·변호사)=지난 9월 21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의훈장과 국가주석 표창장 수상.

▲任鍾龍(행정82-84 농협금융지주 회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창조금융부문) 수상.

▲金昭羅(국악92-96 국악양상블 너울소리 대표)=지난 9월 2일 제25회 목포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金宗聲(지질해양94-98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난 8월 30일 중국과학원 국제공동연구상(자

원 및 환경과학 분야) 수상.

▲金正泰(AMP 59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금융위원장상 수상. 또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창조금융부문) 수상.

▲李元濬(AMP 69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

▲高奉勳(AIP 11기 前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본부장)=최근 대한민국 총효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총효대상 시문화 공로대상 수상.

▲李相鎬(ACAD 71기 한국남부발전 사장)=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종합대상) 수상.

▲金學賢(ABP 6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宋在用(SGS 27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기업가정신부문) 수상.

▲金光勳(HPM 26기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지난 10월 4일 2013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尹東漢(AFP 2기 한국콜마 회장)=최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래창조 경영대상(기업가정신부문) 수상.

▲丁豪榮(AFP 3기 LG디스플레이 부사장)=최근 미국 금융전문지 인스티튜터널 인베스터로부터 아시아 최고 재무 책임자(CFO)에 선정.

▲南浩基(AFP 10기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인 사

▲柳永益(정치55-60 한동대 석좌 교수)=지난 9월 23일 임기 3년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朴相大(동물56-6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지난 9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Imagine!

우리나라 모든 공대생들이 1학년 때부터, IEEE English for Engineering으로 공학영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일! 그들이 만들어 나갈 The World Best Scientific Korea, Creative Korea & Global Korea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Bounce! Bounce! Bounce! Would you imagine together?

<http://english.ieee-elearning.org> 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沈林燮(생물교육78-82 삼랑고
교사)= 지난 9
월 1일 이북5
도위원회 함경
남도 함주군 주
지면 명예면장
에 위촉.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서울대학교 동문친목회
합격자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친목회
합격자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공

고려대학교 동문친목회
합격자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공

성균관대학교 동문친목회
합격자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공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치대, 서강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다양한 전문직, 관/공기업 제휴 (치과 공보의 협의회, KOTRA,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성혼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멤버십 제휴혜택(하나투어, 코오롱스포츠 서초점, 르네상스 호텔 등)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 혼 정 보 회 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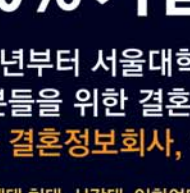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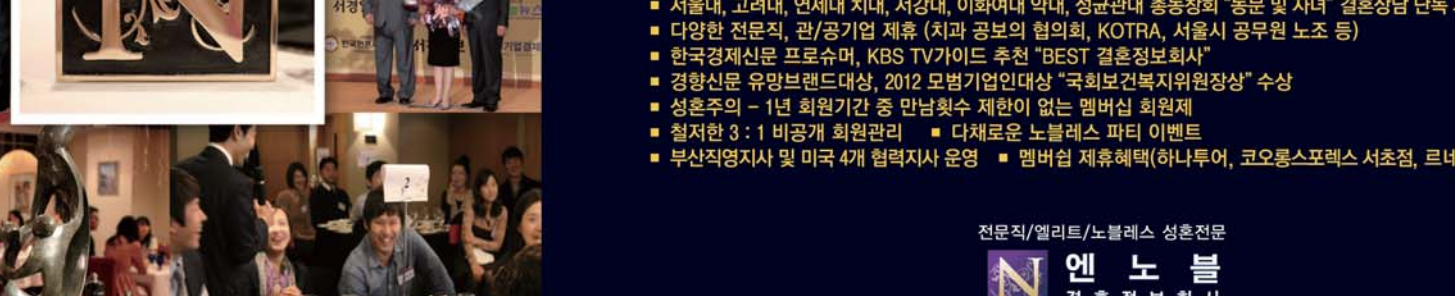





기업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 大賞 시상

Korea Excellence Enterprise Award 2012





▲姜南薰(무역79-83 前정외대 지
식경제비서관)
=지난 9월 13
일 한국산업단
지공단 이사장에
선임.

▲鄭敬元(경제79-83 시민테크리
아 사장)=지난 9월 4일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코리아 사
장에 선임.

▲柳鴻熙(대학원82졸 前대한기계
학회 학술이사·
한양대 교수)=
최근 대한기계학
회 제58대 회장
에 선임.

▲朴翰梧(화학80-84 바이오니아
사장)=지난 9
월 16일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자
문위원회에 위촉.

▲金容範(경영82-86 메리츠증권
증권 사장)=지난 9월 16일 메리
츠금융지주 최고운영책임자(COO)
에 선임.

▲李秉國(행대원84-86 국무조정
실 정부업무평
가실장)=지난
9월 12일 공식
출범한 새만금개
발청 초대 청장
에 임명.

▲金義道(농경제84-88 前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남북출입사무소
장)=지난 9월 17일 통일부 대변
인에 임명.

▲金빛내리(미생물88-92 모교 생
명과학부 교수)
=지난 9월 16
일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미래
전략분과자문위
원에 위촉.

▲許 燁(AIP 41기 前한국전력공
사 개발사업본
부장)=지난 9
월 12일 한국남
동발전 사장에
선임.

▲安鎬元(HPM 6기 한국심성교육
개발연구원장)
=지난 9월 5일
경희대 동문 목
화학회 회장에
선출.

▲趙守鎬(회화47-51 대한민국 서
예문화 원로
총연합회 총재)
=지난 9월 24
~29일 서울시
립미술관 경희궁
제1전시실에서

제8회 대한민국 서예문화 원로
총연합회전 개최.

▲文國鎭(의학49-55 고려대 명
예교수)=최근 ‘법의학이 찾아내
는 그림 속 사람의 권리’(예경리)
출간.

▲孫一根(법학51-64 가천대 초빙
교수·분회 상임
부회장)=지난
9월 24~29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제1전시
실에서 열린 제8
회 대한민국 서예문화 원로총연
합회전에 명예회원으로 출품.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
장·분회 부회
장)=지난 9월
13~14일 경기
도 성남시 글로
벌 캠퍼스에서
‘2013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개최.
▲司空晔(상학58-64 세계경제연
구원 이사장)=
지난 9월 22~
24일 오스트리
아 잘츠부르크에
서 열린 불커그
를 제1차 회의

에 참석.
▲朴興日(영어교육60-64 모교 기
독교동문회장)
=지난 9월 28
일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와 공동으로 한
국기독교회관에서
제3회 서울대·직장선교 비전포
럼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
장)=지난 9월
29일 제50회 수
원화성문화제에
서 ‘예술, 몸을
들썩이다’라는
주제로 공연축제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
교수·북한법연
구회장)=지난
9월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북한법연구
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李敦基(임학65-69 모교 산림과
학부 명예교수)
=지난 9월 16
~27일 아프리
카 나미비아에서
열린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총회에
전임 의장 자격으로 참석.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
연구원장)=지난 9월 26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제18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 세미나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8
월 29일 6·25 국가유공자를 대상
으로 ‘외국인 150만 시대, 다문화
사회 가속화’를 주제로 특강.

▲羅成淑(응용미술71-75 서울과
학기술대 교수)
=오는 10월 24
일부터 11월 3
일까지 서울 인
사동 선화랑에서
북촌한옥마을을
주제로 ‘나성숙유희전’ 개최.

▲鄭相國(대학원75-77 한국PR
협회장)=지난
9월 1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에서 창립 24주
년 기념식 겸
PR포럼 개최.

▲李伯純(독문82졸 前외교부 북
미국장)=지난 9월 11일 첫 시집
‘세월에 등 기대어’(푸른나무)를
출간.

▲崔炳鎰(경제78-82 한국경제연
구원장)=지난 9월 19일 미국 워
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朴槿惠
정부의 경제정책 :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

▲鄭在浩(국어교육79-83 모교 정
치외교학부 교
수·미중관계연
구센터 소장)=
지난 9월 23일
모교 아시아연구
소에서 중국 중
양당교 民洪華교수를 초청해 ‘중
국이 보는 미국’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鄭星姬(국사82-86 동아일보 논
설위원·한국여
기자협회장)=
지난 9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언론사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2013 기자가 되는 길’ 워크
숍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趙載文(전기공학46-49 前인하대 교수)=9월 13일 별세(88세)
- ▲李圭煥(영어교육46-50 이화여대 명예교수)=9월 17일 별세(85세)
- ▲鄭回甲(작곡48-51 모교 명예교수)=9월 13일 별세(90세)
- ▲趙哲濟(독문51-56 前경북대 교수)=9월 12일 별세(83세)
- ▲金聖珍(약학52-56 前상록수약국 대표)=9월 12일 별세(82세)
- ▲李永根(건축54-57 정하건설 회장)=9월 10일 별세(79세)
- ▲任 赫(의학54-60 前동부정형외과 원장)=9월 21일 별세(78세)
- ▲李在祥(법학61-65 前이화여대 법대 학장)=9월 2일 별세(70세)
- ▲金時昇(법학65-69 변호사)=9월 13일 별세(66세)
- ▲李榮一(공업교육66-70 前신라호텔 대표)=9월 25일 별세(67세)
- ▲梁承萬(화학공학71-76 KAIST 교수)=9월 26일 별세(63세)
- ▲尹炫根(정치74-78 국방대 교수)=9월 4일 별세(6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주식회사 다원
Daawon Co., Ltd.



www.daawo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오피스텔 301호 (TEL)070-4196-2589 (FAX)02-585-2589 / 공장: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길4 (TEL)041-741-2595 (FAX)041-741-8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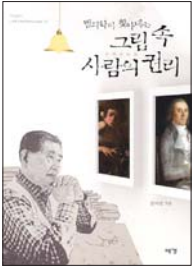
Beverage! New Leading Company

(주)다원은 전통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식·음료전문기업으로서 자연의 순수함 속에서 정직과 신뢰로
나보다 고객을 생각하는 바른정신으로 항상 고객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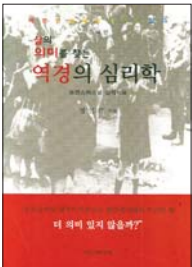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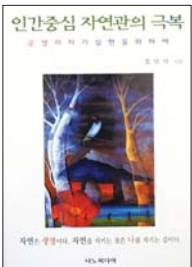
신 간

■ 법의학이 찾아내는
그림 속 사람의 권리
－ 文國鎮 지음



고대와 현대 유명한 예술작품을 법의학자인 고려대 文國鎮 (의 학 49-55) 명예교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책. 우리나라 제1대 법의관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창립멤버인 文 동문은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고야를 비롯해 쿠르베와 휘슬러, 들라크루아, 칼로, 미켈란젤로, 카라바조, 고흐, 달리, 앙소르, 안센 등 예술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작가들이 남긴 그림과 자료를 소개하고 화가의 예술성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중점을 두고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다. <예 경刊·값25, 000원>

■ 인간중심 자연관의 극복
■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
－ 鄭寅錫 지음



한국트랜스퍼스널학회 鄭寅錫 (교육 51-55) 교문이 인간중심의 자연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책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인간중심 자연관의 극복’은 종래의 인간중심적인 자연관·행동양식으로부터 자연중심·생명중심·생태중심의 자연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인간주의, 삶의 질, 생태계의 상생, 공생기술의 개발, 생명권 평등주의와 심층적 생태론, 생태친화적 생활의 실천, 트랜스퍼스널한 자기동화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문제를 다루고 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은 인생에 있어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임을 알려준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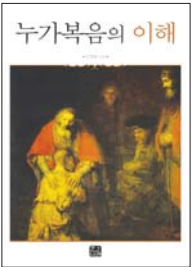
인생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노미디어刊·값13, 000원>

■ 건국대통령 이승만
－ 柳永益 지음



최근 국가편찬위원회에 임명된 한동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 柳永益 (정치 55-60) 석좌교수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李承晩박사의 생애와 사상 및 업적을 종합적으로 다룬 학술서적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柳교수는 오랫동안 ‘이화장 문서’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李承晩의 정치역정에 관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힐 뿐 아니라 그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독립운동가로서 李承晩은 비록 상하이 임시정부와 하와이 교민사회를 원만히 이끄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외교·선전 노력으로 ‘한국 독립의 문’으로 알려진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내는 숨은 공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일조각刊·값30, 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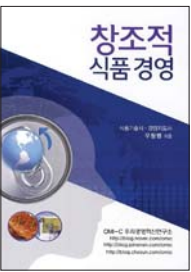
■ 누가복음의 이해
－ 趙明翰 지음



모교 심리학과 趙明翰 (심 리 57-61) 명예교수는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누가복음의 뚜렷한 특징으로 ‘전기적인 이야기 담화양식’이라는 서술양식에 주목했다. 누가복음은 일련의 사건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고 개개의 사건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맥락에 의존적이다. 예수의 생애를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최초의 인물로 꼽히는 누가는 예수 사역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전경으로 화면에 형태의 모습을 그리듯 누가복음을 서술했다. 오늘날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야기 전개에 맥락을 파악하고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예수의 어떤 사건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한나레출판사刊·값38, 000원>

■ 창조적 식품경영
－ 禹昌命 지음

우리경영혁신연구소 禹昌命 (농 화학66-70) 소장이 식품인이 알아야 할 테마에 대해 소개한 책.



이 책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의 가치는 무엇인지부터 경영환경의 변화, 경영 핵심 포인트의 변화, 가치관의 공유, 바람직한 리더십, 창조와 혁신을 위한 소통, 창의력과 통섭, 외식산업의 경영전략, 품질경영과 식품안전 저장장 시대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을 살펴본다. <우리경영혁신연구소刊·값20, 000원>

■ 소통과 설득의 달인 맹자
－ 趙星基 지음



제자백가사상가 중에서 가장 논리정연하다고 손꼽히는 맹자의 삶과 가르침을 송신대 문예창작학과 趙星基 (법학68-77) 교수가 소설 형식으로 풀었다. 맹자는 움집달짝할 수 없이 코너에 몰렸다 싶은 상황에서도 절묘한 논리로 위기 상황을 돌파한다. 저자가 ‘맹자’를 최고의 토론헬 교과서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밑바탕에는 임기응변 차원을 넘어선 윤리적 신념이 깔려 있다. 핵심 표현을 제외하곤 어려운 한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줘 원문을 직접 접하기 전 위밍업 삼아 읽기에도 좋다. <그물刊·값20, 000원>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柳鍾秘 지음



서울 관악구 柳鍾秘 (철 학 78-85) 구청장이 지난 10월 1일 수필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사회생활을 할 때, 연인과 가족을 사랑할 때, 지식을 얻고 활용할 때,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여가를 보낼 때, 조직을 이끌 때 등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에 남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총 6장으로 구성해 남다르게 세상사는 법부터 남과 다르게 사랑하는 법, 남과 다르게 말하고 쓰는 법, 남과 다른 스타일로 조직이끄는 법 등을 알려준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누구의 인생이든 모두 신의 손가락이 쓴 동화”라며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메디치미디어刊·값14, 000원>

공 연

■ 李仁植 작품발표회
－ 11월 2일 세종문화회관

성신여대 작곡과 李仁植 (작곡 82-86) 교수 (사진)가 11월 2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일곱 번째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사랑견문록’을 주제로 열리



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는 이날 공연에서 ‘자화상’, ‘사랑하는 까닭’, ‘부부’, ‘사랑 없으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을 선보인다. <공

■ 미학 에세이
－ 陳重權 지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예술’까지 동양대 교양학부 陳重權 (미학82-86) 교수가 예술, 철학, 정치, 사회를 아우르는 미학적 사유의 장을 펼친다. 미학자로서 저자가 그간 치열하게 사색해온 예술과 세상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섬없는 고찰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글감이 강의를 위한 독서, 또 다른 책의 집필 과정, 때로는 그 날 읽은 기사에서 얻어지곤 했다고 밝힌다. 그렇게 무심히 얻어진 듯한 소재들은, 필연적으로 미학적 사유의 테두리 안에서 방향과 자리를 잡는다. <씨네21북스刊·값17, 000원>

■ 절벽사회
－ 高在鶴 지음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괴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치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가 가는 개념들이다. 한국일보 高在鶴 (동양사학82-89) 경영전략실장은 여기에 한 가치를 덧붙인다. 바로 ‘절벽사회’다.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음의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절벽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1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북스刊·값15, 000원>

■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 林馨佰 지음



성결대 지 역사학과학부 林馨佰 (농촌 사회교육89-93) 교수가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 책.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눠 1부는 공간구조의 이해,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한국의 경제개발정책,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국토종합계획 등으로 구성했다. 2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李明博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인구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3부는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결론 등으로 꾸몄다. <한울아카데미刊·값27, 000원>

■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

－ 朴亨濬 지음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朴亨濬 (토목 공학89-96) 연구원이 ‘재벌 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제언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권력자본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재벌 기업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朴正熙시대의 압축 성장, 1987년 민주화, 1997년 경제위기, 포스트-1997 구조개혁, 최근의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논쟁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재벌 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정에 과학적 논거와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 <책세상刊·값20, 000원>

www.kjh.co.kr



제설하는 즐거움

더욱 강력해진 파워와 뛰어난 효율성으로
힘든 제설작업의 수고를 덜어 드리며
작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용의 강력한 엔진 장착, 손쉽게 회전되는 슈트 -

Ariens 제설기 시리즈



ST 36



ST 32DLET(궤도형)



ST 22



ST 28DLE

(주)경진이레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7-4 선덕B/D TEL : 02-574-6300 FAX : 02-574-3144
서비스센터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13-10 TEL : 031-795-3055 FAX : 031-795-3072
홈페이지 : www.kjh.co.kr E-mail : kjh@kjh.co.kr



EYE PROTECTION

Any time, Any where ! 아이프로텍션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우리 눈은 청광과 자외선에 노출되어 급격하게 피로를
느낍니다. 이것이 심하면 시력저하, 망막의 노화/퇴화를
겪게 됩니다.

아이프로텍션은 눈에 유해한 빛들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현대인의 눈을 보호하는 생활안경**입니다.

문의전화 (02) 862 - 5555
홈페이지 http://www.eyeprotection.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ep.glasses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TV,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야외활동(등산, 마라톤, 사이클, 스포츠 경기관람 등)시 눈부심을 느끼시는 분
- 최근에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분
- 그 외 소중한 눈을 보호하고 싶은 모든 분





세계적 명차 안에 나 있다

까만 매연 없이도 빠르게 오래 달리는
자동차의 혁신 덕분에
지구는 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세요? 미래형 자동차도 전기에너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글로벌 리딩기업이
대한민국 삼성SDI라는 사실을

**글로벌 에너지기업 삼성SDI가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의 전기를 달리게 합니다**

혁신 에너지 (Innovation Energy)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혁신적인 IT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배터리 기술
녹색 에너지 (Green Energy)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친환경 전기 에너지 기술
미래 에너지 (Future Energy) 에너지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안전 대형 에너지 저장기술



HYUNDAI
MOTOR GROUP

자원을 만들다

과거에는 버렸던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하루 14만 배럴의 청정원료를 만든다
[세계최대규모의 GTL 정제플랜트 준공]

생명을 공급하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하루 28만 6천여톤의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꾸다
[라스리만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자연을 치료하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대규모 오염부지를 복원하다
[유해 중금속 오염토양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WE
BUILD
TOMORROW**

현대건설

法務法人 大亞



대표변호사 **강 창 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 육군법무관 전역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고등검찰관
- 수원지방검찰청 고등검찰관

본 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13-1 한승아스트라II 307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TEL. 02. 532. 0504 FAX. 02. 532. 0554 E-mail. kcj4147@naver.com
 안양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309호 TEL. 031. 382. 7090 FAX. 031. 382. 7092

★ COMPAGNIE MARTIN®

DANIEL HECHTER
PARIS

GERARD DAREL

CARLIN Groupe
Creative trend forecasting



Miffy



Le Petit Prince™

GR
GEORGES RECH



PREMIÈREVISION



GLI CONSULTING

지 엘 아 이 컨 설 팅

해외 브랜드 도입 · 해외 전시회 홍보 · 트렌드 컨설팅 · 면세사업

Tel : (02)522 6447(대)

www.gliconsulting.com

대표 조 귀 용 (의류학과 80年 卒)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8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5. 24~9. 13) · 일반 (2013. 5. 24~9. 13)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邊榮進= 1백만원

상임이사

△崔鴻圭 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권영규 行院80
△권왕술 문리65 △김관진 SPAR12
△김석희 AIC3 △김용표 문리68
△김진배 AMP57 △김항덕 상대59
△박달이 간호74 △양승우 상대68
△여환명 농대86 △윤열현 AMP68
△이명란 간호84 △이상호 공대92
△최상렬 농대78 △홍성덕 ACAD31

(일반) △강동구 사회82
△강호진 공대02 △고보석 음대02
△고주몽 문리68 △김건차 공대64
△김소연 음대94 △김재식 ACPM5
△김종화 사회78 △김진학 SGS29
△김창순 공대71 △나광덕 공대00
△박비룡 行院10 △박선주 AIP36
△박태우 사대53 △백운학 SPAR8
△서정선 의대70 △신숙희 간호66
△신용식 AIC30 △안병수 법대46
△엄용훈 공대76 △원경식 ACAD75
△유영경 ABKI1 △유영익 문리55
△유태경 공대79 △윤지상 법대97
△이기표 공대72 △이성리 GLP9

△이용직 사회81 △이정석 약대75
△이종상 법대86 △이진일 공대72
△임광희 공대75 △임만성 공대77
△임선기 공대64 △정경하 약대91
△정문숙 음대81 △조은희 음대65
△조재형 AMP74 △최 훈 공대79
△최경한 IFP7 △최재만 상대62
△함석전 법대88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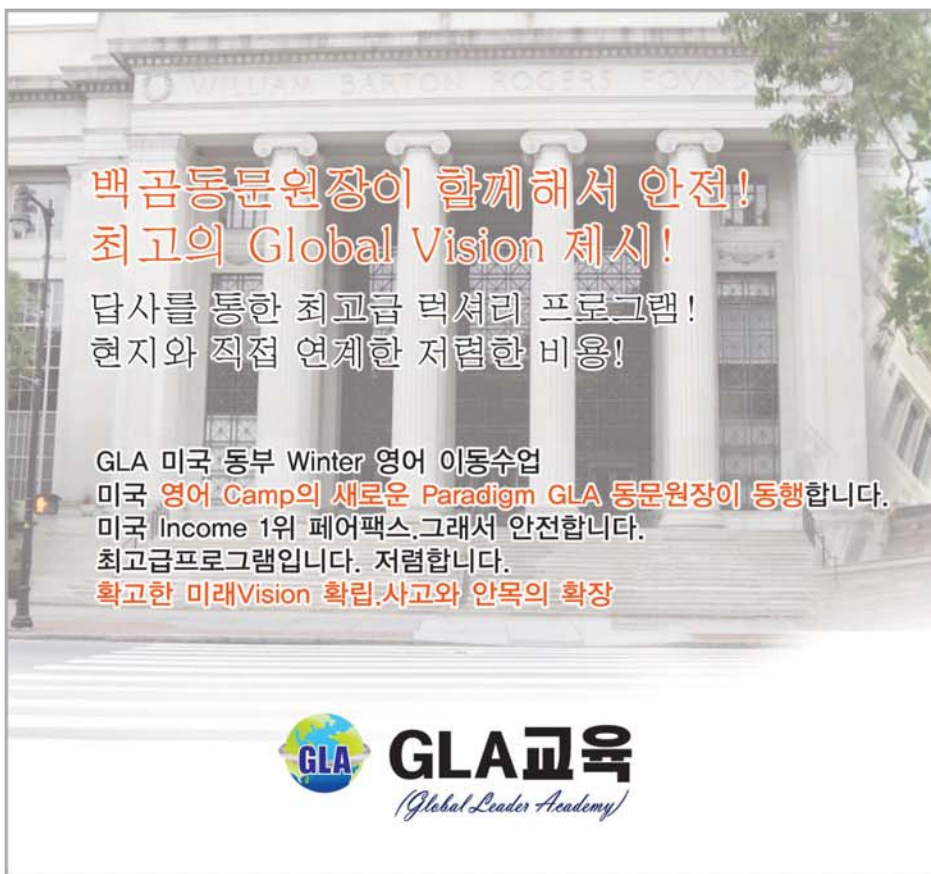
◆인문대 △김희갑82
◆사회대 △김 영79 △김광영82
△김소용79 △김창균80 △김태기76
△박찬욱72 △방창식83 △오재석78
△이주형72 △장철호83 △전홍진79
△정응근87 △조병철73 △주진혁77
◆자연대 △금종해76 △민영철74
△박종희82 △이상호75 △이태림77
△장대연74 △장성기72
◆간호대 △박상연68
◆경영대 △김근수77 △박기준85
△유경연95 △임기찬90 △전용주86
◆공대 △강경일75 △강효순68
△강희신85 △곽상철76 △권익현69
△김광옥56 △김대모61 △김대식78
△김덕재54 △김병길64 △김병만83
△김선복62 △김성환66 △김영수58
△김영신89 △김인동80 △김정섭77
△김진기87 △문찬국73 △박동서61
△박상덕71 △박성규57 △박신동65
△박종택48 △박철규87 △박형기82
△박화규77 △배재흥70 △변순전85
△부창렬77 △서동식81 △손태원72
△신동식51 △양 갑68 △양윤재69
△염사연64 △오세기64 △유재운78

△윤석구53 △이명호53 △이승기70
△이영우79 △정금영77 △정순전66
△정태영75 △정형수59 △조규남72
△조재현75 △주기태69 △최정우84
△하태흠75 △한도석78 △홍민표74
△홍성완62 △홍성일66
◆농대 △김경미84 △김광호61
△김원달67 △부경생60 △서기호60
△오원식83 △유 석59 △이건일60
△이광희84 △이규승67 △이선진69
△정재용79 △조국광75 △조규태74
△조민식67 △조재구83 △조진환50
△한갑준52 △홍동선56
◆문리대 △권민웅62 △김 욱69
△김상하45 △김진동58 △문희수60
△박익송60 △박흥식66 △서옥식69
△유양수57 △윤호미61 △이용태53
△이용화53 △이정수59 △이정윤54
△임형두57 △진홍순70 △최정도62
△한필순57 △황인광63
◆미대 △권석봉81 △김영대67
△백문기46 △송복희74 △우상호89
△조정승59
◆법대 △강병섭68 △강태중52
△권광중61 △김범수82 △김상우86
△김성수68 △김승호82 △김영수79
△김영훈54 △김인겸82 △김정삼72
△김제식77 △김종구59 △김준규75
△김진우52 △김철수52 △김현아90
△김호응72 △박수복77 △박승문78
△박윤훈55 △박정규57 △박준서58
△박준서59 △박태훈66 △박형관85
△박환승83 △박휴상65 △서정석77
△손기식68 △안상수64 △윤성태61
△윤호일61 △윤홍근79 △이건준72
△이경우76 △이기배71 △이동춘59

△이민재72 △이주성76 △임성규76
△임종훈73 △전재기58 △정환상50
△정호영66 △조남욱53 △조용무60
△지성우66 △최병륜56 △황영하58
△황철규83
◆사대 △강경돈70 △김남조47
△김봉근60 △김승재71 △김종필46
△김전수58 △김학전59 △나민주85
△박병기81 △박봉상59 △박영미75
△박형준60 △박효석70 △방재욱68
△손영목60 △엄영주66 △오윤용60
△오창훈83 △윤용섭61 △윤재석71
△이규석66 △이동식72 △이봉수74
△이선준48 △이오봉61 △이원호68
△이재혁63 △이호준60 △정광삼58
△정규생58 △정원식48 △주기성72
△채미영82 △최동환72 △최병순69
△최상훈76 △최성재85 △최희유68
△허영섭74
◆상대 △권영식66 △권태인46
△김덕기52 △김명준62 △김성규57
△김영섭66 △박태하58 △백정기71
△서승원63 △손재환69 △송병락59
△신양우70 △유석홍61 △이종백69
△이태환58 △장종록57 △전종환51
△정 용61 △정재택58 △정대웅67
△최기동70
◆생활대 △여의주82 △우경자61
◆수외대 △김진구61 △나기식54
△박호인71 △엄영호77 △오효성77
△조희익59
◆약대 △김길수60 △김재환68
△남승국70 △손인자69 △신화용46
△지현석56
◆음대 △민미란73 △이오규70
△이재숙59 △이준성81 △전신주67

△하주화73

◆의대 △김명호68 △김상은77
△김예원68 △노종희70 △박동현70
△박상용57 △백낙환44 △손근찬52
△손기섭51 △신기철75 △오승환56
△유세화65 △윤유석92 △이건용69
△이태연92 △정두용73 △정용인68
△한병채58 △홍창의45
◆치대 △구본석78 △김경남72
△김종철71 △김종태70 △김홍석59
△민병희74 △박기성55 △배현성64
△손일수71 △송명옥86 △오세웅90
△이민선66 △이봉재56 △이재봉70
△임채균53 △최순철73 △현기용77
◆대학원 △김진경93 △문두길87
△문형근79 △박성호95 △이광재78
△이범수85
◆경대원 △김선대72 △김정태68
△김한준89 △박원봉68 △최원영93
◆교대원 △송향섭64 △정석민70
◆보대원 △권학한75
◆신대원 △김우룡71 △김이환72
△김태문71
◆행대원 △곽대훈78 △권기성77
△배문환63
◆한대원 △강길부76 △양언모82
◆AMP △권영선3 △권오영64
△김수환15 △남재호33 △서호근60
△양성욱1 △유해준40 △이병구16
△이병성2 △조봉구19 △조형수58
◆AIP △김서규40 △김성길7
△김후근17 △박영구31 △박영기29
△박한창17 △오태호33 △이덕영23
◆ACAD △강동화68 △김철환46
△노재우16 △박명규40 △박성득20
△신은우56 △이정익34 △정송학54
△정시채9
◆ABP △심형보16 △정공훈22
◆HPM △백성길4
◆AMPP △김종민4 △송실광7
△홍석우9
◆AIC △김영식29 △류진국1
△이경의5 △이경호7 △이일로1
△이정재2 △조정구8 △최유섭11
◆AMPFRI △강태호22 △김경호15
△이준희9 △한기영3 △한봉수9
◆ACPMP △박상남3 △우순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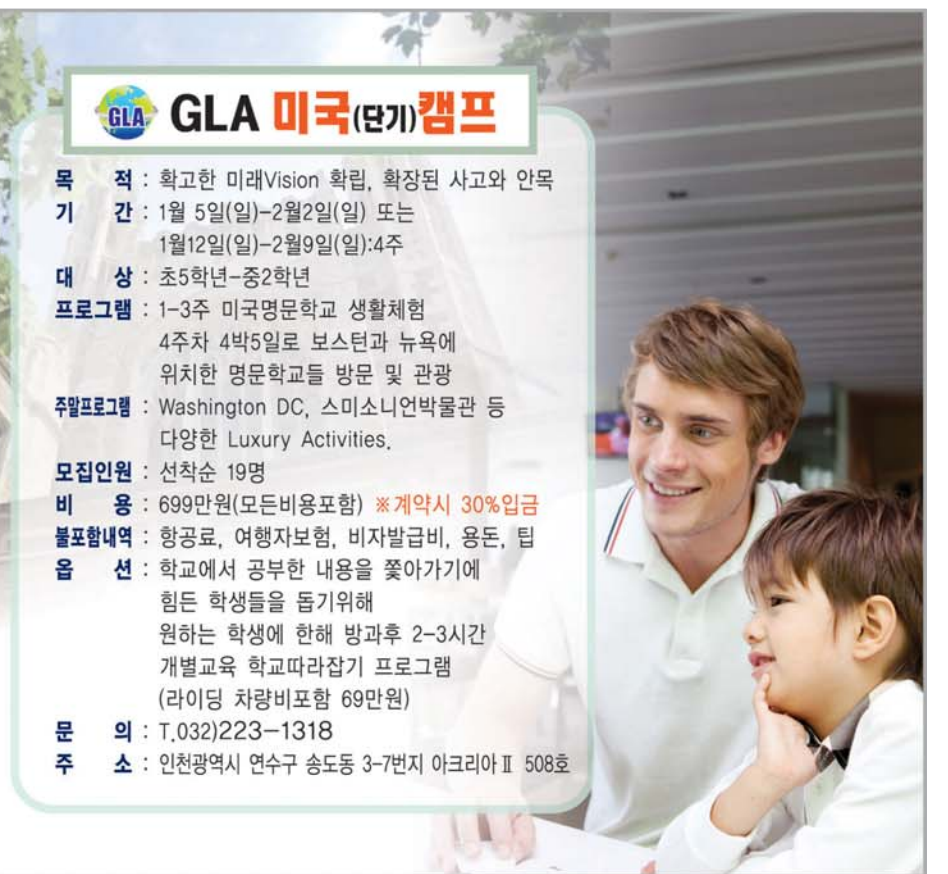


**백곰동문원장이 함께해서 안전!
최고의 Global Vision 제시!**

답사를 통한 최고급 럭셔리 프로그램!
현지와의 직접 연계한 저렴한 비용!

GLA 미국 동부 Winter 영어 이동수업
미국 영어 Camp의 새로운 Paradigm GLA 동문원장이 동행합니다.
미국 Income 1위 페어팩스. 그래서 안전합니다.
최고급 프로그램입니다. 저렴합니다.
확고한 미래Vision 확립. 사고와 안목의 확장

GLA교육
(Global Leader Academy)



GLA 미국(단기)캠프

목 적 : 확고한 미래Vision 확립, 확장된 사고와 안목

기 간 : 1월 5일(일)~2월2일(일) 또는
1월12일(일)~2월9일(일):4주

대 상 : 초5학년~중2학년

프로그램 : 1~3주 미국명문학교 생활체험
4주차 4박5일로 보스턴과 뉴욕에
위치한 명문학교를 방문 및 관광

주요프로그램 : Washington DC, 스미소니언박물관 등
다양한 Luxury Activities,

모집인원 : 선착순 19명

비 용 : 699만원(모든비용포함) ※계약시 30%입금

불포함내역 :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용돈, 팁

유 선 :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쫓아가기에
힘든 학생들을 돕기위해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과후 2~3시간
개별교육 학교따라잡기 프로그램
(라이딩 차량비포함 69만원)

문 의 : T.032)223-1318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번지 아크리아 II 508호

◆GLP △김경식② △김영훈⑬
△김용태⑬ △손영수③ △양재길⑤
△오윤석⑬ △윤석호⑦ △윤재호⑭
◆ALP △김승제④ △손용근⑥
◆ANMP △염옥봉①
◆SPARC △김인환② △이덕록⑦
△이수원⑬ △최승수⑫

일 반

◆인문대 △강태승③ △구자현⑦
△김성환⑥ △김윤미⑦ △김혜은⑤
△남궁찬③ △박국상② △방한빈⑦
△서선령⑦ △성기혁⑥ △송재봉⑦
△신강문② △신완섭⑥ △심윤남②
△인정민⑥ △오성민⑦ △원종명⑨
△이아녜스⑦ △이용기⑧ △이용진⑤
△이형구④ △이흥규⑦ △장대철④
△전상욱⑥ △정지원③ △정진기⑧
△조현명③ △진영규⑪ △진지은⑤
△최종윤③ △최희중⑩
◆사회대 △권상우⑧ △권수복③
△권철원③ △김경수⑨ △김계수⑧
△김대규⑦ △김봉준⑥ △김성희⑩
△김소라③ △김영생⑧ △김용대⑦
△김재우⑦ △남현선⑤ △박덕환⑦
△박순일⑥ △박종철⑨ △박준서⑧
△손석준⑥ △송 화③ △신병주③
△신영호⑧ △신제윤⑦ △안재완⑧
△양윤석④ △여지윤③ △오영환②
△유연정⑦ △이기범③ △이동현③
△이동현⑤ △이민호④ △이상훈⑪
△이선아⑦ △장윤정③ △장희경⑦
△장희철④ △정국환⑦ △정용준⑦
△정용진⑧ △조윤지③ △조인우⑥
△조재근④ △주병기⑧ △최정훈⑪
△최형근⑥ △허찬미⑦ △홍재욱⑥
◆자연대 △김남성③ △김남우③
△김성환⑥ △김아영③ △김용규⑥
△김정범⑧ △김진주⑪ △김진희⑦
△김태영⑪ △김한결⑪ △김희웅③
△박유나⑥ △박종훈④ △신재혁⑦
△안정은③ △오은정② △윤다정⑪
△윤상은⑦ △이경희⑦ △이동우③
△이소영③ △이영근⑥ △이충렬⑥
△이현철③ △임은하③ △전세영③
△정 황⑦ △정광필⑤ △정지혁⑦

△정태현⑨ △조동원⑦ △진가배③
△최경원② △한진우⑦
◆간호대 △박현자③ △범지현③
△이순임⑦ △임미현③ △정민경③
△태영숙⑦
◆경영대 △고두형① △권용기⑦
△김기훈② △김성환⑦ △김은집③
△김종성② △문홍장④ △박민주⑥
△박희수⑦ △변형규⑦ △선상엽③
△안태진⑥ △안호성⑥ △양서정①
△이상수⑦ △이선화④ △이영기①
△이형일② △조승호⑧ △표현덕⑥
◆공대 △강민정⑪ △강봉돈⑦
△강상우③ △고재경⑥ △공명국②
△곽귀성⑦ △곽덕훈⑥ △곽민정①
△곽우섭⑦ △곽한우⑦ △구민석⑦
△구자영⑦ △구자호⑥ △구준모⑪
△구현모⑦ △권영선⑤ △권혁준⑤
△권혁중⑧ △김 영② △김 진③
△김경락⑦ △김규은④ △김기훈⑥
△김돈건⑨ △김동규⑤ △김동철⑥
△김병숙② △김병진⑤ △김석철⑥
△김성권⑦ △김수웅⑥ △김수환⑥
△김신추⑪ △김신태③ △김용구⑦
△김용덕⑥ △김유희⑦ △김재하⑪
△김재형⑤ △김재환④ △김종민⑥
△김종철⑦ △김종훈③ △김주영⑤
△김지웅③ △김진욱⑨ △김정일⑤
△김철홍⑤ △김태경⑧ △김태영⑧
△김태환⑥ △김학기⑤ △김한규⑦
△김현구⑦ △김현덕① △김현수②
△김혜령② △김홍태⑦ △남궁석②
△노관우⑦ △류재룡⑦ △류중희⑤
△문혜진⑪ △박대철⑦ △박명규③
△박민규⑪ △박병창③ △박보영⑦
△박세영⑤ △박승균③ △박영규⑤
△박용성③ △박의종⑥ △박재민⑥
△박재복⑤ △박재서⑥ △박종철⑥
△박지형③ △박진모⑦ △박찬용⑥
△박희규④ △박희선⑤ △배성준⑨
△백봉근⑤ △변철식③ △서세현⑥
△서장원⑧ △성정현③ △송기선③
△송대중⑤ △송재규⑤ △송준은⑤
△송준환⑥ △송화정⑪ △신상재⑪
△신소영③ △신승천⑦ △심수병⑥
△심재복③ △안상규⑤ △안정기③
△안학수⑤ △오동익⑧ △오서균③

△오일영⑧ △오종관⑤ △우세훈⑦
△유병욱⑧ △유슬기⑪ △윤익근⑦
△윤정목③ △윤창기③ △이 룰⑥
△이강록③ △이규생⑦ △이근수④
△이기재③ △이기화③ △이민규③
△이민중⑦ △이병주⑥ △이병철⑧
△이상욱⑤ △이상운③ △이성준③
△이세형⑧ △이수영③ △이승률⑤
△이영우⑤ △이영준⑦ △이요한⑦
△이용욱⑨ △이원복⑤ △이웅직⑤
△이인태③ △이일환⑤ △이정국②
△이정규④ △이정규⑦ △이제근⑤
△이종상⑦ △이종수② △이진열⑦
△이태경⑩ △이태민⑤ △이현행⑦
△이호인⑥ △이효준③ △이희발⑦
△임종현④ △임태원④ △장대현③
△장명수⑨ △장석호⑤ △장연국⑩
△장현봉⑦ △장희수③ △전성익③
△전승현⑦ △전영동⑤ △전유정③
△전정규⑥ △전홍기⑥ △전건목⑨
△정규능⑤ △정민선⑦ △정병호⑤
△정봉주② △정상구⑦ △정석현⑤
△정원배⑤ △정의진③ △정재호⑧
△정진구⑦ △정진삼⑥ △정종길⑦
△정태식② △정태중④ △정현영⑦
△정형식③ △정희기⑪ △조남규⑪
△조남철② △조봉현⑩ △조승우⑤
△조정주⑤ △조현제⑦ △조형래⑤
△진희철⑦ △차건호③ △차승현⑦
△채수창② △최갑주⑥ △최고봉③
△최동일⑥ △최수홍⑥ △최의원④
△최인영③ △최재평② △최정혜⑥
△최종욱⑥ △최준섭⑥ △최호근③
△한겨레⑧ △한장원⑪ △한창석⑥
△한태영⑤ △허광엽⑤ △호영철⑤
△홍성범⑤ △홍성우③ △홍용근②
△황재광⑦ △황준현⑤
◆농대 △강인복④ △강인섭⑦
△강정일④ △김갑근⑤ △김규식⑥
△김남훈⑤ △김민기⑦ △김봉수⑤
△김상도⑦ △김연표⑤ △김영각④
△김장섭④ △김재윤④ △김재민⑥
△김정근⑦ △김종은② △김종원⑦
△김학기⑤ △김효석③ △남궁수⑦
△남승우⑦ △남영우⑤ △노규식⑦
△류수현③ △민동영⑦ △박양문⑤
△박옥임⑦ △박장렬⑤ △박재모⑤

△박혜진⑦ △백영빈⑤ △손광훈②
△손병구③ △손성호⑤ △송기종④
△송환창④ △안승요⑤ △안희철⑥
△양창범⑤ △오수영⑤ △오영탁⑦
△오희정⑦ △우창명⑥ △우현아⑩
△유근학⑤ △유서호④ △유영상⑩
△이기는③ △이두철⑧ △이용준⑨
△이원희⑤ △이윤환⑥ △이재구⑤
△이재완⑥ △이준원⑧ △이창규⑦
△이택구⑤ △이택규③ △이형주⑦
△이홍복⑤ △이화영⑤ △임근영⑨
△임노현⑦ △임동준⑥ △임용섭⑦
△임철홍⑪ △장성중⑤ △장용인⑦
△장정식⑥ △전우방⑤ △정돈철⑥
△정무남② △정선자② △정진석②
△정해각⑤ △조범호⑤ △조수경⑦
△조준기④ △주대영⑤ △진영호⑥
△최금석⑦ △최동아⑥ △최병원⑦
△최상근⑤ △최준석⑧ △최중섭⑦
△최진협④ △한관석④ △한상익⑦
△한정수⑤ △한재선④ △홍석인⑦
△홍의표⑤ △황재순⑦ △황재우⑦
◆문리대 △강신표⑤ △강희조⑤
△고병국④ △고석진⑦ △고인석⑤
△곽민섭⑦ △권방웅⑥ △기우탁⑦
△김구현⑤ △김기현② △김만목⑤
△김무창⑥ △김병영⑤ △김성배⑦
△김수춘④ △김영성② △김용달⑦
△김인철⑥ △김한배⑦ △김호정④
△남기진⑤ △박대일⑥ △박성철④
△박정일⑥ △배인하⑤ △배태영⑦
△백병기⑥ △변중섭④ △서군강⑥
△송병철④ △신원선② △신호순④
△신화영⑤ △안삼환② △안화영⑦
△유광준⑦ △유지현⑦ △윤석구⑥
△이문구⑤ △이상근⑤ △이성화⑤
△이연희⑤ △이영훈⑤ △이용길②
△이용웅⑤ △이재승⑤ △이정배⑤
△이효정⑦ △임채욱⑦ △정기호⑤
△정봉택⑤ △정익성⑦ △조규광④
△조무현⑥ △조봉계⑥ △조성근⑤
△조원홍⑦ △주순호⑤ △주혜경⑥
△최규봉⑤ △최승구⑦ △최인일⑥
◆미대 △권은솔③ △김상규⑧
△김성희② △김예임③ △김응화⑧
△배경희② △손복희⑦ △송진명③
△심치순⑦ △여지수③ △원모희⑤

△유영일③ △이성경③ △이운식⑤
△이지호⑦ △이화영③ △전지윤⑥
△정선화⑤ △정인경⑤ △정정자⑥
△정종미⑦ △주진희⑦ △진광산②
△차정화⑤ △최숙경⑤
◆법대 △강정희⑦ △경익현⑦
△고건호⑦ △곽영욱⑥ △곽용재⑥
△구본성⑦ △구재근⑦ △김기남②
△김기동③ △김남수④ △김동익③
△김동주⑨ △김상욱⑥ △김상태⑥
△김선규⑤ △김선병⑧ △김선중⑦
△김세돈⑦ △김수홍⑦ △김영근⑦
△김용갑⑦ △김운영⑧ △김을섭⑤
△김정렬④ △김종국⑤ △김주원②
△김지영③ △김진병⑤ △김춘호②
△김호철⑤ △나민수⑦ △남우현⑨
△노창호④ △문정두⑥ △박병규⑤
△박상근⑥ △박상형④ △박영우⑤
△박용승⑦ △박재현⑥ △박주환③
△박준범③ △박진수④ △박창훈⑦
△방국성④ △배용찬⑥ △백영철⑥
△백주현② △서원태⑦ △손석주⑤
△손지호② △송길대⑨ △송석봉⑦
△신광렬④ △신근식③ △신주희③
△안해연⑦ △예세민② △오영상②
△오정돈⑦ △우병우④ △우영진②
△우익원④ △유덕택④ △유태길⑤
△윤 탁⑥ △윤성근⑦ △이근부③
△이병우⑦ △이병호⑥ △이상근④
△이성규② △이소라③ △이승섭⑦
△이재우⑧ △이종문⑤ △이준범⑦
△이지은⑥ △이지은③ △이필관⑨
△이한구⑦ △이현수② △이흥락③
△임인규⑦ △임창원④ △임현수⑦
△장순욱④ △장지석⑥ △장홍선④
△장효정③ △전제균⑥ △정광욱⑥
△정극수⑤ △정기돈⑦ △정세욱⑤
△정일만⑦ △정재형⑤ △조병직④
△조영동⑦ △조주은⑤ △진혜인③
△최건호⑪ △최경자① △최광률④
△최기선④ △최용구⑥ △최정훈⑦
△한상근② △한영광③ △한주상③
△한준엽⑥ △허진성④ △홍일표③
△홍종현④ △황종우⑥ △황지운③
◆사대 △강장원④ △고경순⑥
△고두현⑦ △김윤상⑨ △김관섭⑦
△김리경③ △김병수⑤ △김소연⑤



대표이사 한 기 수

First all in one INJECTOR in the world

IOL Placement System

주식회사 알이티 / 주식회사 라파아이텍

361-5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77

Tel. 080-263-1470

Fax. 043-271-5373

Web. www.retinc.kr

△김승배⁸⁰ △김연성^① △김영준⁷³
△김영찬⁵⁵ △김용길⁵⁴ △김원배⁸²
△김종욱³⁹ △김종우⁵⁴ △김주경⁵⁵
△김진철⁶⁸ △김학모⁵⁶ △김형원⁶⁵
△김현호^③ △김형구⁶⁰ △김혜우⁶⁴
△남궁기⁴¹ △노지영⁸² △목영부⁵⁴
△문정대⁵³ △박병윤⁶⁵ △박영목⁵⁶
△박종대⁵¹ △박전배⁷⁴ △박희동⁷⁵
△방영선⁷⁵ △변희준⁵⁸ △서덕현⁶⁹
△선기은^⑥ △신용국⁵⁵ △신찬우⁴⁸
△심상석⁵⁸ △심상필⁵⁰ △심숙주⁷⁴
△안규철⁵⁸ △양덕배⁶¹ △오경자⁵²
△오유정^⑧ △유규상^⑤ △유병석⁸⁰
△유오진⁵⁸ △유택상^③ △윤석원⁶⁸
△윤종훈^⑥ △이달덕⁷⁰ △이만형⁶²
△이상철⁵⁹ △이성근⁷⁶ △이순녀⁸²
△이시정⁵⁴ △이시훈⁵⁷ △이용덕⁷¹
△이윤하⁶³ △이재만⁵² △이제용⁶⁰
△이주호^⑦ △이현복⁵⁸ △이현지^⑧
△이화진¹¹ △임규찬⁷⁶ △장대운⁵⁴
△장완배⁶¹ △전경옥⁵⁸ △전기채⁵¹
△정광훈^⑩ △정보미^⑥ △정봉섭⁶⁵
△정신화⁷¹ △정혜린¹⁰ △조의래⁵⁶
△조익선⁴⁰ △지동소⁵⁵ △천낙경⁵¹
△최귀남⁶⁶ △최두영⁷⁸ △최아라⁹⁹
△최영림⁷⁶ △최천하⁵² △한재란^⑧
△한정림⁵⁹ △한태준⁸⁰ △황남택⁶⁴
◆상대 △강문수⁶⁷ △강원구⁵⁴
△강화중⁶⁸ △고학모⁵⁶ △권만식⁶⁵
△김윤일⁶⁶ △김정삼⁵⁹ △김종서⁵⁸
△김종장⁵⁵ △노일봉⁶⁹ △민병태⁵⁸

△박동순⁵⁷ △박인석⁴⁸ △박지중⁶⁶
△변원옥⁴⁹ △서병태⁶³ △송인구⁵⁹
△송정위⁶⁰ △신동현⁵⁶ △신용태⁵⁹
△신준현⁵⁶ △양재국⁵⁰ △양재욱⁵³
△양해성⁶⁸ △오맹선⁵³ △위봉택⁶²
△유장희⁵⁹ △이기철⁵⁵ △이기홍⁵⁰
△이성열⁶⁹ △이성재⁵³ △이영희⁶⁷
△이재환⁶² △이종윤⁶⁴ △이태중⁵⁰
△임창무⁵³ △임한석⁵⁹ △장기남⁶¹
△정덕화⁵⁶ △정택순⁵³ △조근목⁵⁵
△조성일⁶² △채수환⁵⁶ △최성환⁵⁶
△최준철⁵⁹ △하기성⁵⁸ △한영국⁵⁰
△허도행⁶⁴ △홍동진⁴⁸ △황창기⁵⁴
◆생활대 △김영미⁸³ △백선자⁶⁴
△윤기숙⁶⁸ △이은숙⁸³ △권정현^③
△김세리^⑤ △김예지^⑧ △안수라^⑧
△이지수^⑩ △차가영^⑧ △최재영^⑦
◆수의대 △강 은¹¹ △고주영⁶⁵
△김경휘⁵⁶ △김정근⁵⁰ △김준삼⁵⁵
△김지나^⑤ △김태훈^③ △김협수⁸¹
△남궁진^③ △남궁선⁵⁷ △노병의⁶¹
△노상석⁶⁵ △박노국⁶⁴ △박유순⁶³
△서상호⁹¹ △서정기⁷⁸ △송기홍⁶¹
△신문균⁵⁶ △원문상⁶⁰ △유승창⁶³
△이강석⁷⁴ △이금주⁸³ △이시현^③
△이원철⁷⁴ △이중희⁴⁹ △정승기⁵³
△정정현⁵⁹ △조기형⁴⁹
◆약대 △강기훈⁶⁴ △권창호⁴⁷
△김길수⁵⁰ △김병주¹¹ △김진형⁸⁸
△김태룡¹¹ △남기혁⁵² △류한호⁶⁰
△문병철¹¹ △박태선^④ △배옥남⁹⁵

△배종철⁶⁹ △서동화⁶⁹ △송순자⁶⁰
△송희성⁶⁰ △윤광수⁶⁹ △이상호⁶⁶
△이훈자⁵⁶ △정근배⁶¹ △정대인⁶⁷
△조미정⁸⁷ △조철원⁵⁷ △주탁유⁷⁰
△최기철⁵³ △홍순태⁶⁷ △황봉자⁶¹
◆음대 △김나정⁹⁴ △김명희⁶⁴
△문영애⁶⁵ △박소희^⑤ △박정배⁵³
△서운진⁹⁴ △송복자⁸⁴ △신윤식⁶⁹
△안형일⁵³ △유정민⁸⁷ △윤라영^⑧
△이문경⁷⁶ △이민나^⑩ △이윤영^⑤
△이한돈⁶⁵ △이현진^⑤ △조혜정^⑧
△최영택⁷⁴ △하내인⁵⁸ △한태원⁷³
△현병화⁴⁸ △현지윤^⑤ △홍수민^⑤
△홍순미⁷¹ △황인영^⑤
◆의대 △고재균⁵⁰ △김 윤⁶²
△김내준⁴⁹ △김성환^⑤ △김종환⁵⁰
△박성근⁸⁹ △박지영⁸² △박홍용⁸⁰
△백나형⁵⁴ △석종식⁶⁴ △송만준⁵⁷
△송진화^⑤ △신상만⁶¹ △신용잔⁵⁴
△신종근⁸⁷ △심재식⁶⁷ △안충현^⑤
△유명철⁶¹ △유형록⁵⁷ △이동규⁷⁷
△이동명⁷³ △이동욱^⑤ △이신애^⑦
△이준석⁹⁶ △이태훈¹¹ △임경환^⑩
△전영훈⁷⁴ △정준형^⑤ △조민현^⑤
△주진순⁴³
◆자유전공 △나현주^⑤ △문기현^⑤
△이경민^⑤
◆치대 △고진수⁵⁸ △김강주⁷⁹
△김만석⁵⁶ △김상근⁸³ △김성하^④
△김영수⁵⁷ △김용철⁶³ △김인수⁸²
△김평일⁷² △노철진⁵⁴ △문창남⁵⁸

△민선경⁸⁵ △박경정⁶⁹ △박동욱⁶⁷
△박상규^③ △박용세⁶⁰ △박용학⁵⁸
△박이자⁶⁰ △서운석⁷² △손대식⁶⁵
△안병관⁵² △안상규⁵⁹ △우형식⁵⁹
△유치린⁵⁸ △윤태호⁸² △이경우⁷¹
△이장훈⁵⁷ △이재호⁸⁰ △정영한⁷²
△정인환⁶⁰ △정평구⁵⁸ △주관철⁵⁹
△주광섭⁷³ △최규원⁷⁷ △최승은⁶³
△함병도⁷⁵ △홍성룡⁶⁴
◆대학원 △김현탁⁸² △모수미⁷⁵
△박명호⁸⁹ △오형재⁷⁹ △허도하⁸³
△황종모⁸⁰
◆경대원 △박준석⁶⁶ △송준덕⁸⁸
△유민철⁷¹
◆교대원 △이상길⁷⁰
◆국대원 △고영진^⑧ △정사랑^⑤
◆법대원 △김규현^⑤ △이재성¹⁰
△이재욱¹⁰
◆보대원 △김선희¹⁰ △박당우⁶²
△박주홍⁹⁴ △신학근⁶⁰ △이용성⁷³
◆신대원 △이민희⁷³
◆융대원 △최명지¹¹
◆치대원 △홍지원^⑤
◆행대원 △강남구^⑧ △그 렉¹⁰
△김선태⁹⁰ △김용국⁷⁴ △김주현⁹²
△서일수⁶⁷ △원희영⁶⁹ △이원기⁶⁷
△이준원⁸⁷ △장윤정¹⁰ △홍현선⁷⁷
◆한대원 △고성하⁷⁷ △김정욱¹⁰
△박종준^⑤ △송슬기¹⁰ △이동관^③
△이태리¹¹ △전상훈⁸³ △전은선¹⁰
◆AMP △강중현²⁶ △고윤재²⁰
△권태명⁷⁴ △김경덕¹⁸ △김관수⁶¹
△김수길²⁷ △김연수⁶⁶ △박성규¹⁵
△박영대¹ △서재희²⁵ △서준영²⁰
△서철봉³³ △손재환⁴⁸ △신명철⁸
△안윤수⁷⁴ △오연수⁴ △우정욱³⁷
△유철조¹² △윤일중⁶⁵ △윤태하³⁴
△이성연⁴ △이순제²² △이영주⁵
△이재환⁴⁸ △이종학¹³ △이찬복⁶⁷
△이준호⁴⁶ △이현국¹³ △이현주⁷⁴
△정용근⁴⁵ △정의순⁴
◆AIP △고형석²¹ △김극배⁴⁸
△김승길¹⁰ △김창진⁴⁸ △박영욱³⁸
△박정오¹⁶ △유영준⁴⁷ △이동명⁴²
△이천우¹³ △장희천²⁰ △전인균⁴⁸
△조경석⁴⁸ △최득호⁴⁸ △최용길²²
△최익선²⁵ △황기인¹⁰
◆ACAD △김 진⁷⁵ △김달술²
△김부근³¹ △김한욱⁵² △김호연¹¹
△도기달⁶⁶ △박경실⁷² △박명서²⁷
△박시영⁷⁴ △박용암⁴³ △서영주⁷⁵
△성기태⁵⁹ △안효원⁴⁵ △안희수¹¹
△이상종⁷³ △장해익³⁴ △조병창³¹
◆ABP △박성관²⁶ △박형규²⁰
△배덕재⁴¹ △백형욱³⁶ △서재선⁴⁰
△윤해진²⁹ △이재호⁴⁰ △이현구³⁹
△황세영³⁷
◆SGS △권오신⁵ △김권욱¹⁸
△김명수² △김희덕²⁹ △송기태²⁹
△안영대²² △유철중²⁸ △윤진환²⁴
△최호운¹⁸
◆APC △서동훈¹⁵ △안 기¹⁵
△오철우¹⁷ △유명철¹¹ △이용운¹³
△하정호⁸ △황수경⁸
◆HPM △강덕재²⁹ △권도연²⁹
△권차남⁵ △김명숙²⁹ △김용락²⁹
△김재선²⁹ △김형운²⁹ △류희근⁴
△박상채²⁹ △박원빈²⁹ △박중엽²⁹
△박희두⁷ △석성희²⁸ △엄금량¹⁴
△유근일²⁹ △윤지영²⁹ △이구봉²⁹
△이선화²⁹ △이승열²⁹ △이승표²⁹

△임경민²⁹ △장동한²⁹ △정 욱²⁹
△조동순²⁷ △조이만²⁹ △주범로²
△최낙원¹⁶ △최진호¹⁹ △하우형²⁹
△한상환²⁹ △현대우¹
◆AMPP △고영수¹⁰ △김기웅¹²
△김종배¹² △박경조¹² △손명호¹²
△이성현¹² △한재순⁷
◆AIC △강철호³⁴ △구관서²⁸
△남호연⁴ △왕진원¹¹ △전 진⁵
△조현호³² △최인환³⁴
◆AFB △최수현¹² △김병관¹²
◆AMPFRI △김심형²⁹ △박인술²⁹
△이경삼¹¹ △이우규²⁶ △전문한²⁹
◆ACPM △구지윤⁴ △박세원⁹
△성경환⁹ △신병규⁹ △염정남⁶
△오병삼⁵ △이경범⁹ △이종명⁹
◆FIP △김종용⁹ △신인식⁹
△정연삼⁹
◆GLP △강한석²⁶ △김태진¹⁸
△마명욱²³ △손동호²⁴ △이종욱²⁶
△이효승²⁶ △임채룡²⁶ △차기민¹⁶
△최도승²⁴ △최성덕²¹
◆ALP △곽상욱¹² △권영찬⁴
△길기봉² △김민성¹⁶ △박창수¹¹
△손창환¹⁷ △이준호¹⁷ △이학범¹⁴
△장세영¹ △정영조⁸ △주정환¹³
◆SPARC △김영석⁵ △정무신⁵
◆AFP △김성주¹¹ △김홍렬¹
△민복기¹¹ △이원호¹¹ △최외홍¹¹
△한철호⁵
◆ASP △배동기²⁰ △송희원¹⁰
△신종한²⁴ △양선장¹⁶ △이명영²⁴
△임영빈²¹ △장주인²³ △김원부⁸
△남 인¹¹ △최성원²
◆IFP △구본훈⁸
◆ABKI △김길현³ △도종성³
△박건용³ △임문숙³ △정해돈²
△최희남¹ △최희환³ △현상섭²
◆KFL △강미화¹⁶ △강윤수⁸
△강정욱¹¹ △김건환¹¹ △김설경¹⁰
△김영숙¹³ △김유경¹⁵ △김정숙¹⁰
△김종철¹² △김텃골¹¹ △동소현³
△마수정¹⁵ △민정선¹⁶ △박려화¹⁴
△박영숙¹¹ △박인아¹² △배은교¹⁵
△백미혜¹¹ △백유진¹⁴ △신유정⁹
△유재기¹⁶ △유현정¹⁰ △윤형숙¹³
△이민희¹⁶ △이명숙¹⁰ △이미애¹¹
△이병호¹⁶ △이소영¹¹ △이수현¹⁵
△이영선¹⁵ △이은영¹⁵ △이은자¹⁶
△이은주¹¹ △이인환¹⁵ △이현아⁵
△이현주⁹ △임효진¹⁶ △장희연¹⁴
△전승자¹⁵ △정성호¹⁵ △조경현⁹
△조윤희¹¹ △차성만¹² △최규희¹⁶
△최금섭¹² △최말순¹³ △최안나⁴
△최윤정⁴ △최주섭¹⁵ △최주연¹⁶
△홍은영¹⁵ △황수영¹⁶

분 담 금

◆인도네시아지부 1,000,000원

2013년 8월

연 회 비	15,570,000
평생회비	20,700,000
입 회 비	320,000
분 담 금	1,000,000
계	37,590,000
2013년 누계	797,578,751

소방가치창조를 선도하는
국민안전동반자

www.kfi.or.kr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세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열린 사고와 소통으로
소방산업체와 동반성장하며
소방안전 강국의 꿈을 키워 갑니다.

소방산업 진흥 및 해외마케팅 지원
소방산업정보시스템 서비스 /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 UL, FM 등 국제인증 지원

소방용품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소방용품 및 방염물품 검사 / 위험물탱크 등의 안전검사 / 소방장비 검사·검수

소방산업 기술 연구개발
실용기술 지원 /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 소방기술 특허 지원



SAMSUNG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삼성의 채용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고
트윗글리쉬로 매일매일 엿지있는 영어회화를 배우며
열정樂서, 삼성직업멘토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 선배의 잘 나가는 비결,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S4!**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S4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m.kakao.com/s/748

(주)상영무역 | +82+2-599-6390 | sy@sycoltd.com

세계적인
Hair Fashion Leader

~History of 26 Years~

SANG YOUNG

(주) 상영무역

SANG YOUNG Co., Ltd. (Korea)

Tianjin SANG YOUNG Arts & Crafts Co., Ltd. (China)

BEAUTY WAVES Co., Ltd. (Myanmar)

이제
기회에
바라자!



i love games

I.L.GAMES